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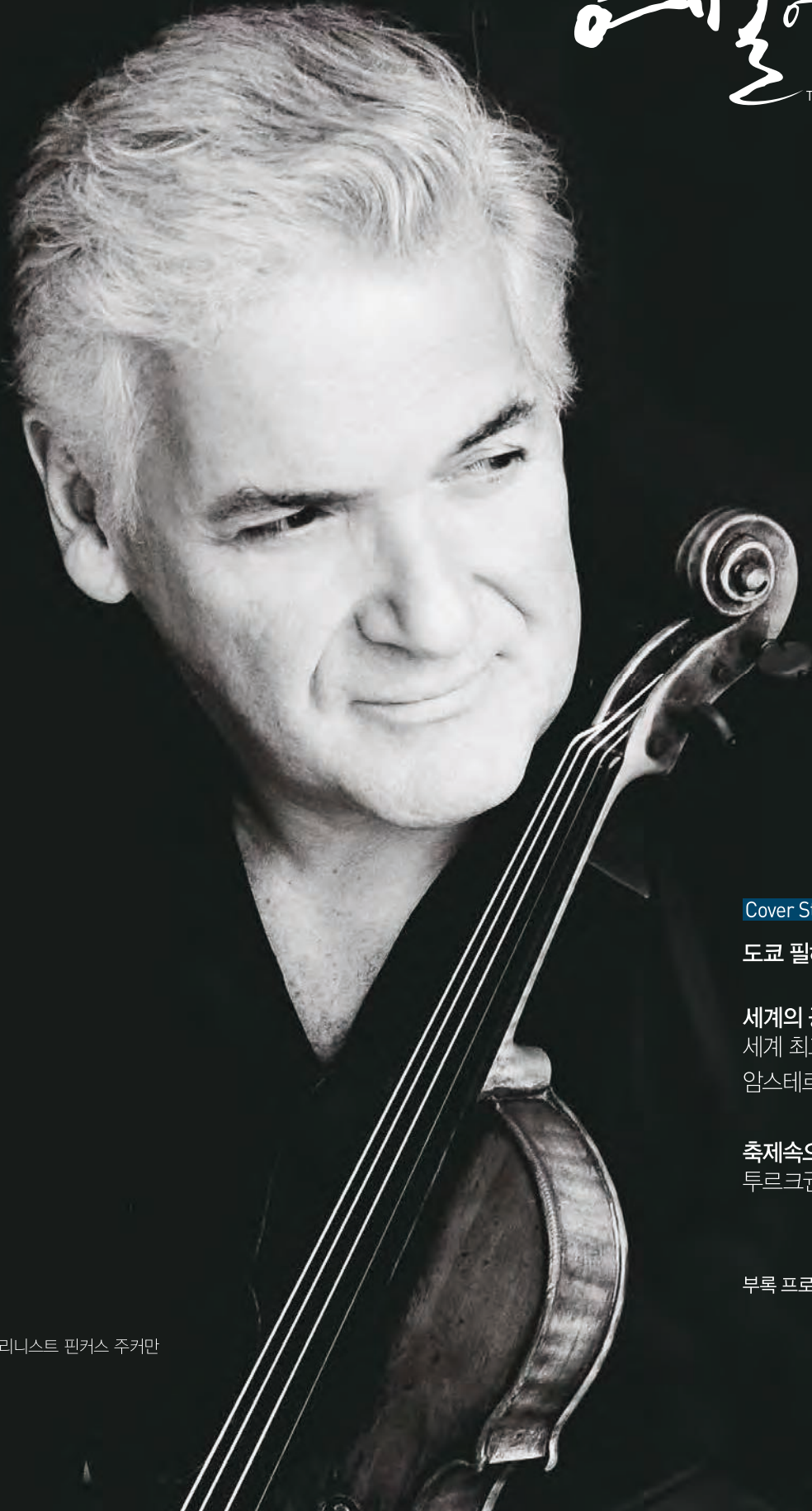
INVITATION
TO THE
ARTS

NOVEMBER

예술계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11 vol.299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

Cover Story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세계의 공연장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을 만날 수 있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로열 콘서트헤바우

축제속으로 고고

투르크멘 문화예술축제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클래식 여행

곡

가곡

由

2016. 11.29(화) 7:30 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강림문화재단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별 후원 | |주강림CSP | 임수복장학재단 | (주)강림오가닉 | 바이오콤 | (주)삼비

| 무료초대권 신청및문의 | **KNN** 051-850-9566, 9568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선착순마감

미래 세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강림문화재단이 해마다 마련하는 클래식 성찬!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클래식 여행**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로 제1회 <베토벤>, 제2회 <모차르트>, 제3회 <요한 슈트라우스>에 이어
올해는 제4회 <가곡>의 타이틀로 성악 향연이 펼쳐집니다.

1부 '외국 가곡' <메기의 추억>, <현정>과 함께 2부 '우리 가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920년 작곡된 우리 가곡 1호 홍난파선생의 <봉선화>부터 1930년대 근대적 가곡, 1940년대 예술가곡...
그리고 2000년대 현대 가곡까지, 개척기에서 100여년에 이르는 한국의 서정가곡, 대중가곡 등을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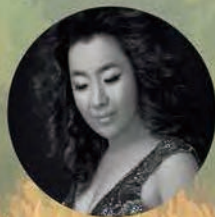
버터필드 J. A. Butterfield	메기의 추억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
쇼팽 F. F. Chopin	슬픔 Etude Op.10 No.3 Tristesse
슈만 R. A. Schumann	현정 Widmung Op.25 No.1
홍난파	봉선화
조두남	뱃노래
안정준	아리아리랑 <small>외수곡</small>



예술감독
오충근
Choong-Keun Oh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소프라노
고예정
Yea-Jung Ko



테너
신동원
Dong-Won Shin



바리톤
최종우
Jong-Woo Choi

MUSICAL GALA SHOW

뮤지컬 갈라쇼

노트르담 드 파리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황태자 루돌프
엘리자베스
레이제라블 외 유명작품

CAST | 선승일 김정호 정호준 정종욱 이상호 김현기 이태경
박슬기 문지영 신새봄 박다솜 김경원 최예나

2016년 11월 4일 | 금 | 7시30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SunFun HighClass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티켓가격 VIP(1층)석 3만원 R석(1층) 2만원 B석(2층) 1만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YES24.COM 전화예매 051)749-7651 할인적용 누림회원·초·중·고·다자녀·사랑티켓 단체20인 이상(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50%)

남궁옥분
사랑사랑 누가 알겠어

소리새
그래 그리고 나

추가열
나갈수록 맑은 강가요

7080 낭만콘서트
가을소풍

추가열 · 남궁옥분 · 소리새

2016. 11. 11 (금)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R석(1층) 45,000원 A석(2층) 20,000원 B석(2층) 10,000원

주최 SunFun HighClass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인터파크 YES24.COM 예매 인터파크 YES24.COM 전화예매 및 문의 051) 749-7651 관람제한 8세 이상

할인 누림회원, 20인 이상 단체, 초·중·고등학생, 다자녀 30% 할인 / 문화바우처,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할인

그로 위를 시름 위를 결는 지니

창작 뮤지컬

해운대연가

2016. **11.30** | 수 | - **12.3** | 토 |
 수·목·금 7시 30분 | 토 5시 ▶ 4회 공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제작 Suna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una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Suna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후원 문화나눔 문화체육관광부 B.A.S.I.C. 보살문화재단 예매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총제작 김성모 연출/극작 박정우 작곡 이진실 박정우 총괄PD 구자민 음악감독 이진실 지휘자 손영진 무대감독 박준성 안무감독 정호준 음향감독 전성환 조영감독 이재철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해운대뮤지컬코러스
 출연진 최치원 한규정 위홍 김효영 진성여왕 김경원 부호부인 이내영 예겸 선승일 최윤 김경호 최인위 채민수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2014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Mozart

정희영 *Ouvertuere zu "Die Nacht von Mozart"*

Mozart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Mozart *Piano Concerto No.12 in A major K.414*

Mozart *Serenata No.6 in D major Ky.239 Notturna*

2016. 11. 10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지휘 윤상운 | 클라리넷 백동훈 | 피아노 계명선 | 작곡 정희영 | 연주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백재진]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비르투오조 앙상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CONTENTS

CULTURAL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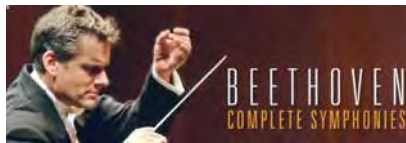
- 08 **커버스토리**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10 **11월 공연 캘린더**
- 12 **세계의 공연장**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을 만날 수 있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 16 **축제속으로 고고**
문화를 통해 친년의 우정을 나누다
투르크귄 문화예술축제
- 18 **테마가 있는 여행**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BOARDS INSIDE



- 25 **프리뷰**
- 32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4 **새로 나온 음반**
- 55 **새로 나온 책**
-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11월호 통권 299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인쇄처 호민디앤피 051 807 5100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okyo Philharmonic Orchestra

8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일본 최초의 교향악단이자 세계적인 명성의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2월 6일 부산을 찾는다.

2017년 1월 첫 걸음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 첫 번째 주인공으로 부산 관객과 만나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도쿄 필)는 올해로 창립 105주년을 맞은 오랜 전통의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로, 특히 올해 9월 지휘자 정명훈이 명예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한국 관객과도 아주 친숙하다.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8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도쿄 필은 지난 1911년 나고야 시의 포목점 '마츠사카야'의 후원으로 창단된 소년음악대가 그 시초로, 1938년 본거지를 나고야에서 도쿄로 옮긴 후 이름도 '중앙 교향악단(주오 교향악단)'으로 바꾸고 이듬해 독일에서 망명한 만프레드 구를리트를 상임 지휘자로 초빙, 1941년부터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였던 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연습실이 전소되고, 악기와 악보 상당수가 소실되는 등 큰 타격을 입으면서 종전 직후까지 사실상 해체 상태에 있었지만, 그 해 9월 야마다 고사쿠를 단장으로 '도쿄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재결성되며 명맥을 이어갔다. 1946년 현재의 이름으로 재창단됐으며, 1948년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NHK와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1952년 재단 법인체로 인가받았다. 1984년 첫 유럽 순회공연을 가진 후 그 성과로 옹가쿠노토모상을 수상했으며, 1986년과 1995년에는 문화청 예술상과 예술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 소니의 명예 회장인 오가 노리오가 이사장이 되면서 재정 지원이 활발해졌으며, 2001년 재정난으로 존폐 위기에 있던 신성 일본 교향악단(신세이 니혼교향악단)을 흡수, 합병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현악단으로 거듭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도쿄 필은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오페라, 청소년연주회, 해외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그 명성을 쌓아왔으며 특히 역사적인 오페라나 발레 무대에 서면서 일본 오페라, 발레계를 떠받쳐온 오케스트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도쿄 필 부산공연에서는 올해 10월, 20대의 나이에 도쿄 필 수석지휘자로 임명되면서 화제가 된 안드레아 바티스토니(Andrea Battistoni)가 지휘하고 그 이름만으로 경이로움을 불러 일으키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교육자인 핀커스 주커만(Pinchas Zukerman)이 처음으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베로나의 젊은 지휘자' 안드레아 바티스토니는 2012년 24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지휘하면서 '라 스칼라' 오페라를 지휘한 최연소 지휘자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든 수많은 국제무대의 오페라 작품을 지휘하면서 대중에게 그 이름을 알렸던 바티스토니는 2013년 스위스 제노바의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게스트 지휘자, 2015년 도쿄 필 수석 게스트 지휘자로 지명됐으며, 현재 지휘는 물론 작곡, 저술에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드레아 바티스토니



핀커스 주커만

“젊은 연주자들은 항상 그들이 동경하는 음악가를 한 명씩 두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커만은 영원 불멸한 젊은 비르투오조이다. 그의 한없이 풍부한 표현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의 음악, 빈틈없는 테크닉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음악가로서의 노력이 이를 반증한다. 늘 그렇듯이, 그의 음악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The Los Angeles Times

'경이로운 음악가' 핀커스 주커만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생으로 지난 1962년 도미, 아이작 스톤, 파블로 카잘스의 후원으로 줄리어드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받았다. 1967년 레빈트리트 콩쿠르에서 정경화와 공동우승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핀커스 주커만은 1968/1969년 시즌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필하모닉과 협연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유리 바슈메트와 더불어 비올라를 독주악기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될 만큼 비올리스트로서도 정상의 위치에 서 있는 주커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앙상블을 이끌며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세계 무대에서 그의 음악세계를 전파하는 등 실내악에도 크나큰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핀커스 주커만은 1974년부터 실내악단을 지휘하기 시작해 지금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뿐 아니라 지휘자로서도 그 명성이 높다. 내셔널 아트 센터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2014년 영국에서 그의 마지막 시즌을 기념하는 연주투어를 가졌던 주커만은 같은 해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수석 지휘자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듬해 1월 플로리다에서도 그의 앙상블과 함께 연주를 가졌다. 또한 그는 콜로라도, 샌디에고, 캔사스시티 그리고 투손의 오케스트라에서도 객원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핀커스 주커만은 브루흐의 대표작이자 낭만적인 선율의 매력과 화려한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도쿄 필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외에도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과 거침없는 관현악의 울림과 낭만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으로 관객들을 감동의 세계로 안내한다.

11

2016 NOVEMBER

SUN	MON	TUE
		1
		<p>소 제3회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19:00 무료/강학윤(010-9287-6350)</p>
6	7	8
	<p>대 라메르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더 클래식 I' 19:30 2만원·1만원 라메르오케스트라(627-5665)</p>	<p>대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52)</p>
13	14	15
<p>대 제2회 그린 벨리빅 공연 16:00 무료/(사)부경벨리댄스협회(803-8838)</p> <p>소 2016 부산국제연극제 고 월드 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몽키댄스' 17: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소 제20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20	21	22
<p>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20:00 균일 3만원(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스토리 팜(010-6833-5880)</p>	<p>대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여명의 빛' 19:30 전석 초대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010-6755-2751)</p> <p>소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20:00 균일 3만원(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스토리 팜(010-6833-5880)</p>	<p>대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단체관람에 한함) 부산시립예술단(607-3148)</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네 가지 색깔의 하모니'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08, 3146)</p> <p>소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20:00 균일 3만원(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스토리 팜(010-6833-5880)</p>
27	28	29
<p>대 제49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Wiener Klassik II' 19:30 2만원·1만 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010-8918-1535)</p> <p>소 김경수 피리 독주회 '바람의 흐름 IV' 17:00 무료/김경수(010-5481-8612)</p>	<p>소 통일교육 프로젝트 '깡깡이 할배' 11:00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단체관람에 한함) 부산시립예술단(607-3148)</p> <p>대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4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가곡' 19:30 초대/(주)KNN(850-9321)</p> <p>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 수영지신 밝기 인간문화재 인형 기념공연 '그 시절 수영지신밝기' 19:00 무료/수영지신밝기보존회(752-2947)</p>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p>2</p> <p>소 김희영의 두번째 가야금독주회 'Esperanza/희망' 19:30 초대/김희영(010-3534-5094)</p>	<p>3</p> <p>소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 제6회 정기발표회 19:30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41)</p>	<p>4</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5</p> <p>대 제3회 PBC 부산평화방송 가톨릭성가제 18:00 무료/PBC부산평화방송(600-8800)</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p>9</p> <p>대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19:30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41)</p>	<p>10</p> <p>대 제14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우희라(010-4556-6703)</p> <p>소 2016 부산국제연극제 고 월드 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몽키댄스'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11</p> <p>야 2016 합창 생활문화예술제 '평화대합창' 11:00 무료/부산합창연합회(920-9545)</p> <p>소 2016 부산국제연극제 고 월드 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몽키댄스' 20: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12</p> <p>소 2016 부산국제연극제 고 월드 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몽키댄스' 17:00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16</p> <p>소 제20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17</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54, 3101)</p> <p>소 제20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18</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54, 3101)</p>	<p>19</p> <p>대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가톨릭합창단(010-3850-6153)</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p>23</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우리웃, 우리춤, 우리가락...전통의 힘! 제1회 한국의 美 & 樂 페스티벌'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p> <p>소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20:00 균일 3만원(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스토리 팜(010-6833-5880)</p>	<p>24</p> <p>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합창과 함께하는 우리의 노래'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p> <p>중 제45회 부산작곡가협회 창작곡발표회 '합창과 관현악의 밤' 19:30 김수진(010-4550-1299)</p> <p>소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20:00 균일 3만원(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스토리 팜(010-6833-5880)</p>	<p>25</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부터...'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소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20:00 균일 3만원(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스토리 팜(010-6833-5880)</p>	<p>26</p> <p>대 제3회 예그리나합창단 정기공연 17:00 무료/예그리나합창단(010-4567-6527)</p> <p>소 한국 팬플룻 오카리나 강사협회 부산지회 제2회 정기연주회 14:00 무료/이창희(010-4018-3993)</p>
<p>30</p>	<p>12/1</p> <p>중 소프라노 박연희 독창회 19:30 윤예술기획(010-9025-2012)</p> <p>소 이중희 대금독주회 19:30 초대/이중희(010-4558-0543)</p>	<p>전시실</p> <p>제10회 한서미술대전 - 대전시실 11월 9일(수)-11월 17일(목) 문의 : 이병곤(010-3881-2584)</p> <p>제36회 부산미술제 - 대전시실 11월 21일(월)-11월 27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p>	<p>제32회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전시회 - 대전시실 11월 30일(수)-12월 7일(수) 문의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517-6568)</p>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을 만날 수 있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12



콘세르트헤바우 전경



2008년 영국의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Gramophone)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The World's Best Orchestras Top 20)'는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음악계에서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인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순위라는 게 호사가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결과를 놓고 나름의 권위도 가져다 준다. 선정의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분명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인 것이다.

놀랍게도 이 순위에는 순위를 처음 접한 사람이거나 관현악 음악에 관심이 크지 않다면 다소 생경할지 모르는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공연장의 상주단체인 왕립 콘서트헤바우 관현악단(Royal Concertgebouw Orchestram, 네덜란드어 Koninklijk Concertgebouworkest)인 로열 콘서트헤바우(RCO)이다. '콘서트헤바우(Concertgebouw)'는 네덜란드어로 '콘서트홀'을 뜻하며, 1988년에 네덜란드 여왕인 베아트릭스로부터 왕립 칭호를 하사받기 전까지는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관현악단(Concertgebouworkest Amsterdam)'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참고로 세계최고의 오케스트라 순위 TOP 10을 살짝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위는 로열 콘서트헤바우, 2위 베를린 필하모닉, 3위 비엔나 필하모닉, 4위 런던 심포니, 5위 시카고 심포니, 6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7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8위 LA 필하모닉, 9위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위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순이다.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비엔나 필하모닉 그리고 런던 심포니 등의 순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 익숙한 연주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랭킹의 다른 순위와 달리 지역명을 유추하기도 쉽지 않다.

콘서트헤바우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Amsterdam) 소재의 관현악단 그리고 동명의 공연장 이름이다. 대부분 오케스트라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지는데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연주하다가 임대 형식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또 몇 차례 연주장소를 거치지만, 대부분 음향적으로 만족할 만한 장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후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을 하거나 시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상주할 수 있는 경우 전용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순서가 달랐다. 처음부터 음향이 뛰어난 매력적인 홀을 갖춘 콘서트하우스가 건립이 되고 이에 상주할 오케스트라를 찾는 형국이었다. 1880년대 사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6명의 상인들이 뜻을 모아 콘서트헤바우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듬해 콘서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임시



위원회가 꾸러지고 다음 해에 재단이 설립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네덜란드의 국토는 상당 부분 해수면보다 낮다. 바다와 면한 암스테르담은 더더욱 그러하다. 부지로 선정된 토지는 대부분 습기가 많고 질퍽했다. 2,000개가 넘는 말뚝을 땅에 박아 놓아야 했고 188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설계는 건축가 아돌프 레오나르트 판 헨트가 디자인했는데 2개의 규모를 달리한 홀과 정원 그리고 파빌리온까지 갖춘 건물이 3년 가까운 공사 끝에 1888년 4월 11일 문을 열었다. 콘서트홀 무대는 독특하게 연주자들이 계단을 내려와서 입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1899년 콘서트헤바우 무대의 기울기를 수정한 건축가 판 헨트의 결정이었다. 이는 관악기가 더 이상 현악기 음향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리하여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콘서트홀의 최종형태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멋진 음악을 들려줄 좋은 연주자와 청중만 찾으면 되었다. 물론 예술적 성취가 있는 지휘자까지... 콘서트홀이 개관하고 반년 만에 56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상임지휘자 빌럼 케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빌럼 멩겔베르흐의 손을 거쳐 이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앙상블로 발돋움했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눈부신 성공이었다. 이후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리카르도 샤이, 마리 안손스 그리고 15/16 시즌부터 상임지휘를 맡은 현재의 다니엘레 가티까지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성장, 그 지위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공연장과 동명인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상주단체와 공연장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콘서트헤바우는 더욱 그러하다. 콘서트헤바우는 공연장임과 동시에 오케스트라인 것이다.

콘서트헤바우는 부채꼴 형태로 구성된 암스테르담의 남서쪽에 위치한 미술관 밀집지구인 뮤지엄플라인(Museumplein) 광장 한편에 위치해 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반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이 인접해 있어서 이 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콘서트헤바우의 파사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콘서트헤바우 입구는 정면 좌측편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좌우 대칭인 파사드와 달리 좌측편에는 파빌리온이 있어서 간단한 식음료를 공연 전후 즐길 수 있다. 객석수 1,974석의 메인 홀 무대에 들어서면 2,726개의 파이프가 달린 마르스할케르베이르트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 01 뮤지엄플라인 광장
- 02 콘서트헤바우 내부
- 03 암스테르담 시내



객석은 비엔나의 뮤직페라인,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와 같이 평면의 장방형으로 1층에 메인 객석 그리고 테라스 형태로 2층 객석이 무대를 바라보고 ‘c’자로 둘러싸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오케스트라가 배치되어 있는 무대이다. 대형 오르간을 중앙에 두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배치가 계단형태로 되어 있다. 마치 합창단이 무대 위에서 단을 이용해서 배열하는 방법과 같은 형태이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현악파트와 목관파트가 공연장 내부 공간에 고루 전달되게 되는, 음향적으로 큰 장점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작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타계했지만 마에스트로 쿠르트 마주어가 콘서트헤바우에서 몇 해 전 연주를 마치고였다. 커튼콜을 수차례 받았지만 노령의 지휘자가 무대 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어 힘들어 하던 모습에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공연장의 유일한 흠을 찾으려면 이 뿐일지도 모르겠다. 수차례 콘서트헤바우에서 연주를 만날 수 있었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1년 마리 앙손스 지휘, 다니엘 바렌보임이 협연했던 리스트 ‘협주곡 1, 2번’이다. 당시 막시마 공주(현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비)의 40세 생일을 기념하는 연주회라 유럽 각국의 로열 패밀리와 네덜란드 정치인이 함께 자리를 하여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라이프치히 말러 페스티벌에서 만난 로열 콘서트헤바우 단원들의 복장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특이하게도 단원들이 제각기 연주복이 아닌 재킷과 정장을 입고 국제규모의 페스티벌 정규 무대에 섰

다. 물론 연주는 호평을 받았고 이후 음반으로도 발매가 되었다. 흔히 네덜란드는 풍차와 튜립으로 상징되지만 그보다도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더욱 도드라지는 곳이다. 여전히 마리아나와 같은 마약이 일부 허용되며 공창이라는 이름으로 매춘조차도 합법적인 나라이다. 이런 정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케 하였고 램브란트가 활약하던 이른바 17세기 황금시대를 열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전 유럽의 지식인들이 몰려든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19세기 말 콘서트헤바우가 만들어진 것도 성공한 자유시민계급의 손에 의해서이다.

암스테르담에서 반고흐 미술관을 찾고 램브란트의 대작 ‘야경’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콘서트헤바우에서 로열 콘서트헤바우 관현악단을 만나는 것은 이 도시를 찾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세계 최고의 음향을 가진 공연장에서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통해 천년의 우정을 나누다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

Turkic Culture Festival



천년의 손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등 투르크권 5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Turkic Culture Festival)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광주, 김해에서 펼쳐진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베리아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퍼져 거주했던 투르크족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왕조를 세웠던 사람들을 의미하며, 지형적으로 터키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뜻한다. 일찍이 동서양 문화의 용광로이자 인류문명의 고속도로였던 투르크권의 문화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저력과 역사를 품고 있다. 특히 알타이어권, 민속신앙, 솟대 문화, 씨름 등 언어부터 놀이문화까지 우리 민족과도 매우 많은 유사성과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어 그만큼 친숙하기도 하다.

이번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투르크 사람들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이들 나라와 한국이 함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및 5개국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날(9일), 카자흐스탄의 날(10일), 키르기스스탄의 날(11일), 터키의 날(12일), 투르크메니스탄의 날(13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각국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차례로 펼쳐진다.

11월 9일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의 날’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엘친 시리노브가 이끄는 엘친 시리노브 재즈밴드와 지난 2007년 명예예술가 타이틀을 받은 아제르바이잔 최고의 나가라(Nagara, 쌍으로 연주하는 북) 연주자인 나티그 리듬그룹, 그리고 남아메리카부터 아시아,



11.8(화) ~ 13(일)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해문화의전당

예약및문의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T.02-3216-1185, www.turkicfest.kr



01



02



03



04



05

- ❶ 나티그 리듬그룹(아제르바이잔)
- ❷ 아스타나 발레시어터(카자흐스탄)
- ❸ 칸테니르 민속그룹(키르기스스탄)
- ❹ 부르한 외찰(터키)
- ❺ 바그쉬(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 유럽 투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음악과 춤을 알려온 아제르바이잔 국립 노래 및 무용단이 출연,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예술을 소개한다. 뒷날인 10일은 '카자흐스탄의 날'로 카자흐스탄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국립고려극장 사물놀이단과 카자흐스탄 발레를 대표하는 아스타나 발레시어터, 카자흐스탄의 민속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젊은 연주자그룹인 하사크 민속그룹 등이 출연, 카자흐스탄 고유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국립고려극장 사물놀이단과 카자흐스탄의 명예예술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쉘레투케바에바가 함께 기획한 '대초원의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내 한국인들에게 제시한 특별하고도 현명한 정책의 결과로, 이 정책에 의해 지난 25년간 카자흐스탄의 한국인들과 고려국립극장 예술가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

11월 11일은 '키르기스스탄의 날'로, '뼈 없는 소녀', '고무 공주'라 불리는 무용수 치나라 마담쿠로바와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칸테니르 민속그룹,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 등의 국제민속예술축제에 초청받고 있는 세메테이 가무단이 한국 관객들과 만난다. 12일 '터키의 날'에서는 다르부카(Darbuka, 서아시아의 단면북)로 세계를 누비는 터키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부르한 외찰과 유럽 최고의 터키 집시음악 밴드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탄불 오리엔탈 앙상블이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 무대는 몬트리올, 시카고, 로마, 베를린 재즈페스티벌 등 세계적 명성의 예술축제에 초청받으며 그동안 100장이 넘는 앨범을 통해 전 세계에 그 명성을 쌓아온 부르한 외찰의 연주를 한국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무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3일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날'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춤과 노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며,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연속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창의적인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투르크멘의 황금시대'를 수상한 투르크메니스탄 갈크니쉬 민속그룹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음악가 바그쉬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예술과 문화를 소개한다. 바그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속음악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로, 가수이자 고대 서사시를 읽어주는 이야기꾼이다. 바그쉬의 음악에는 늘 두타르(Dutar, 2현의 목이 긴 발현악기)가 함께 하는데, 바그쉬의 강한 목소리와 조용하고 시적인 두타르 선율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축제 기간 동안 공연장 로비에서는 사진전 및 전통의상 전시회가 열리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는 투르크 영화제(1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터키의 전통 그림자극인 카라고즈 상연(12일), 주한 터키대사 아르슬란 하칸 옥찰과 이난아 계명대학교 교수, 작가 박범신이 참여하는 강연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터키 문화'(12일), 한국-5개국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차세대 비정상회담(12일)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한편 이번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는 광주와 김해에서 한 차례 열릴 예정인데, 10일 오후 7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는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공연'이, 13일 오후 5시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공연'이 펼쳐진다.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홈페이지(www.turkicfest.kr)를 통해 예약 후 참가 가능하다.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가 지나고
어느새 가을빛이 완연해진 지난 10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191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찬란한 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오랜 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으로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북적거린다. 울긋불긋 가을맛이를 시작한 산자락을 차창 밖으로 내다보며 함께한 가족,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고령이다.

이번 고령여행의 첫 목적지는 '우륵의 고장' 가얏고마을. 행정상으로는 꽤 빈리에 속하는 가얏고마을은 대가야국 가실왕의 명을 받은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이곳에서 제작, 연주하니 가야금소리가 정정하게 울렸다고 해서 정정골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진 '가얏고마을'은 대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가야금과 악성 우륵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최근 우륵 생가를 복원하고 가야금 공방과 체험관, 우륵기념탑, 우륵산책로 등을 조성하면서 가야금을 테마로 한 체험학습마을로 거듭났다.

가얏고마을에서의 첫 일정은 가야금연주 체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가야금을 익히고 배우면서 이제는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직접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다. 가야금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가야금에는 줄마다 음계와 함께 번호가 적혀 있어 음계를 잘 모르더라도 악보에 적힌 번호에 따라 가야금 줄을 뜯으면 연주가 가능하다. 마을 주민들의 친절한 설명에 한 줄 한 줄 천천히 가야금 줄을 뜯자 거짓말처럼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온다. 가야금 연주를 한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해 손 끝이 아프도록 가야금 줄을 뜯다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마을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맛있는 점심식사에 회원들의 수저질이 분주해진다.

오후 첫 일정은 그 이름만으로도 어여쁜 '꽃산병' 만들기. 꽃산병은 이름 그대로 떡 위에 꽃을 얹은 것 같이 모양이 예쁜 떡으로, 양금을 넣은 떡을 떡살로 눌러 문양을 찍어준 후 그 위에 색을 들인 절편으로 꽃장식을 해준다. 백련초가루, 단호박가루, 썩가루 등 천연가루로 예쁘게 색을 낸 떡



을 한가운데 두고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솜씨를 뽐낸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회원들은 만들면서도 자꾸 입으로 손이 간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꽃산병 만들기까지 가야고마을에서의 체험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우륵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야금과 그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을 주제로 한 이색 테마박물관인 '우륵박물관'은 가야금과 우륵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에서부터 가야금의 발전사, 가야금 명인 등 다양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이날 따라 체험학습 온 학생들로 박물관이 북적거리면서 회원가족들은 서둘러 대가야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가야와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의 선사시대부터 근대의 유적과 유물을 전시한 대가야역사관과 지산동 44호분을 발굴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대가야왕릉전시관, 그리고 우륵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대가야역사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둘러봤다. '대가야역사관'은 대가야의 여명과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 등 테마별 전시관으로 꾸며져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인근에 자리한 '대가야왕릉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제 44호분'을 실물크기 그대로 재현해놓은 곳으로, 전시관에 들어서자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법, 순장자들의 구체적인 매장모습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대가야 무덤은 평지가 아닌 산기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봉분 속에 무덤 주인공과 순장자를 함께 묻는 게 바로 대가야 무덤의 특징입니다.”

박물관을 나서자 박물관 뒤편 산기슭에 줄지어선 고분군이 회원들의 시선을 또 한 번 사로잡는다.

대가야박물관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깊어가는 가을 속에 자연과 문화가 함께했던 고령 여행은 천년을 이어온 가야금의 정정한 소리 만큼이나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12월 9일 삼성현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겨울여행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삼성현(원호·설총·일연)의 훌륭한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산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13:00	자인향교, 계정숲, 한장군묘 탐방
10:00	경산 도착, 임당·조영동 고분군 탐방	15:00	삼성현역사문화공원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6:30	부산으로 출발

11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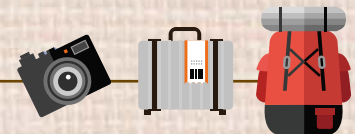
권미경(동래구 명륜로)	이정남(동구 중앙대로)
김경희(영도구 꿈나무길)	장정화(부산진구 백양대로)
김혜령(금정구 식물원로)	조경숙(서구 충무대로)
박창수(남구 황령대로)	조민주(남구 유엔로)
박현정(남구 유엔로)	최혜란(부산진구 신천대로)

● 기존 회원

김길자(해운대구 양운로)	박용진(동래구 시실로)
김숙양(해운대구 중동2로)	송말남(연제구 중앙대로)
류혜경(부산진구 백양대로)	이정희(해운대구 해운대로)
류혜자(해운대구 양운로)	이혜수(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민영기(해운대구 대천로)	조미연(동래구 안남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 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9 10 11 12 1
 WEBER • BEETHOVEN • BRAHMS • SCHUBERT

해설이 있는 2016 월빙콘서트 Ⅳ

독일 음악 여행Ⅱ

2016. 12.2 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제2번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



지휘 조성화
Zhao Xinghua



바이올린 김응수



클라리넷 장재혁



피아노 백민정



해설 및 진행 정희정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협찬 NH 부산시영
문의 607-3106 (홍보팀), 3145 (공연운영팀), 3151 (장기화팀)

입장권 균일 10,000원 (※ 지정좌석제)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할인 (전화예매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 (인터넷 예매 가능) / 예술인패스 소지자 / 외국인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단체 (10명 이상)
※ 학생단체 (3,000원권) ▶ 전화문의

사랑 공감 음악극



돌이와 오 부산항에

용기 내어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
젊었기에 아쉬웠던 사랑이 있다.
이제는 감히 불러본다.
내 사랑을 받아줘.

2016.12.8(목)~10(토)

평일 7시30분 / 주말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연출 **곽종필**
작가 **오은희**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극단 | 주관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 | 제작 | 부산시립극단 | 입장권 | R석 2만원, S석 1만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문의 | 607-3105(홍보팀), 607-3147(공연운영팀), 220-5812(을숙도문화회관)
출연 | 전성환 정행심 이현주 황창기 김은희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장현준 박아영 전현준 최현주 김태원 김성동 안예은
스텝 | 예술감독/연출 **곽종필** 작가 **오은희** 드라마투르그 **이정허** 음악감독 **강원중** 안무 **김은주** 움직임동작지도 **김지영** 보컬지도 **서상민** 무대디자인 **황경호** 영상감독 **김영민**
의상디자인 **김진임** 특수효과 **김태윤** 분장디자인 **박은주** 무대감독 **정순지** 조명감독 **곽동인** 조연출 **이하슬** 음악조감독 **김지영** 기획 **조승환** 홍보 **신정현**

CULTURE

LIFE

November 2016
vol. 299

INVITATION TO THE ARTS

25 프리뷰

32 리뷰

36 프로그램 가이드

54 새로 나온 음반

55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 - 날과 줄 / 늙은 여자



© Park Sang Yun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제75회 정기공연을 통해 전통에 현대적 해석을 가한 창작춤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11.17(목)-18(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051-607-3101, 3154

지난 7월 부산시립무용단 부임 후 첫 안무작 '업경대'로 한국적 컨템포러리 춤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였던 예술감독 김용철은 이번 창작춤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을 통해 전통에 당대의 트렌드를 반영시킨 컨템포러리 창작춤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라는 화두를 소실점에 병치시켜 현재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개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 '날과 줄'에 이어 2부 '늙은 여자'가 무대에 오른다. 작품 '날과 줄', '늙은 여자'는 전통놀이로만 알려졌던 '봉산탈춤'과 '검무'를 모태로 각각 탄생되었다.

전통춤인 '검무'를 재해석한 1부 '날과 줄'에서는 전통 검무에 스며있는 패러독스에서 미학성을 깎아내리는 시도를 펼친다. 검무는 살상도구인 칼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춤이 혼합된 장르이다. 작품명인 '날과 줄'에서 '날'은 검이 가진 섬뜩함이나 살기를, 그리고 '줄'은 거문고 연주의 텅텅과 바람소리를 상징한다. 검의 살기는 현의 바람소리에 조우하며 이들이 만나 한국적 선(線)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그동안 여성 무용수들에 의해서 주로 공연되어왔던 검무를 남성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이미지화시켜 강인하고 남성적인 무예로 재해석한다. 특히 거문고 줄을 텅기는 소리와 판소리 '적벽가'의 중 '조자룡 활 쓰는 대목'에 무예적인 춤사위를 실어 우리의 삶과 애환을 담은 한 편의 풍속화처럼 그려낸다.

'봉산탈춤'의 해체를 시도한 2부 '늙은 여자'는 '봉산탈춤' 중 미알과장을 소재로, 미알할머니 가진 과거 민중 속에서 전승된 전통연희의 놀이적 성격을 현대적 언어로 치환시켜 다양한 춤 장르와 소리,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극 중 '늙은 여자'로 대변되는 미알할머니를 통해 한국인의 낙천적인 성격과 여유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는 동시에 '봉산탈춤'에서 드러나는 그릇된 사랑에 대한 풍자에만 그치지 않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갈등보다는 화합을 이야기한다.

한국 창작춤의 선두주자로 자신만의 고유한 춤 미학을 견지하고 있는 예술감독 김용철은 그동안 다

양한 작품을 통해 한국춤의 전통을 계승하되 창작춤에 있어서는 현대성, 다양성 등 현대예술이 요구하는 고도의 테크닉과 기교를 겸비하고 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아왔다. 21세기 춤 예술이 요구하는 변용과 확장을 무대공간에 철저하게 대입시키는 독창적 안무로 주목받고 있는 김용철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기존 존재하던 '탈춤', '검무'가 창의적 노력으로 얼마나 현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얼마나 현재라는 시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그만의 춤언어로 펼쳐보인다.

작품

제 1부/ 날과 줄

제 2부/ 늙은 여자

- 안무/김용철
- 연출/김용선
- 대본/김관용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우리웃, 우리춤, 우리가락...전통의 힘! 제1회 한국의美 & 樂 페스티벌

지휘 이정필



총감독 이영애



연출 이범권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제1회 한국의美 & 樂 페스티벌'이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1.23(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제1회 한국의美 & 樂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영애우리웃 대표이자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한복디자이너 이영애가 총감독을 맡고 조선통신사, 부산광복로축제, 가야문화축제, 부산섬유패션대축제 등을 연출한 모델 시엔티 대표 이범권의 연출로 궁중복식에서부터 민속복식, 창작복식 등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TBN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을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아리랑 K-Tigers 시범단이 출연, 가무악(歌舞樂)의 향연 속에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웅장함과 신명이 넘치는 '복울림'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군대예식과 왕의 행차 등을 통해 전승된 행진음악인 '대취타'를 비롯해 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축제', 홍동기 곡 '고구려의 혼', 민속음악에서 나온 즉흥성이 강한 기악곡 '시나위' 등 격조있는 궁중음악에서부터 민속음악, 그리고 창작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와 더불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에서는 왕실의 변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왕비 혹은 왕이 직접 추었던 '태평무'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태평성대'를, 부산시립무용단은 한국춤의 즉흥성을 가장 잘 살린 '신살풀이'를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인 태권도 시범단인 '부산아리랑 K-Tigers(지부장 김형만)'는 태권도 동작에 아크로바틱, 웨이브, 브레이크, 제스 등 다양한 동작을 입힌 '태권무'를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지난 2007년 창단한 '부산아리랑 K-Tigers'는 그동안 방송출연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태국 등 세계를 돌며 고난이도의 퍼포먼스 무대를 통해 태권도와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가 기존 판소리에 연극적 재미를 더한 입체창 무대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국악가요 '오

나라', '가시버시사랑', '아름다운 나라'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과 함께 꾸미는 무대로, 춤꾼에게는 장단이 가진 맛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이자 춤사위를 힘차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의 일부분이기도 악기를 하나의 판으로 독립시켜 멋과 신명을 역동적으로 풀어낸 신명의 춤 '타'를 선사한다.

- 총감독 / 이영애
- 연출 / 이범권
- 음악감독 및 지휘 / 이정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 /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아리랑 K-Tigers
- 사회 / 손지현(TBN교통방송 아나운서)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합창과 함께하는 '우리의 노래'

지휘 전진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창단이 11월 24일 한국창작합창곡의 밤을 마련한다.

11.24(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지난 3월 제161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지역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창작합창곡을 선보였던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등장했던 '신민요'를 주제로 한 창작합창곡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지역 음악대학 작곡 전공자들의 합창 창작곡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창작곡은 신라대학교 서민성의 '동래아리랑'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이소진의 '태평가', 경성대학교 정혜빈의 '삼살개타령', 부산대학교 황하영의 '꼴망태타령', 동아대학교 김은진의 '복조리타령', 경성대학교 홍기영의 '정어리타령' 등 우리 전통의 선율을 새롭게 해석한 6곡으로, 2016년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위촉된 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미래의 부산음악계를 짚어주고 갈 차세대 작곡가들의 젊음과 열정이 함께하는 무대로, 젊은 연주자들이 새롭게 풀어내는 다양한 선율을 작·편곡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작곡 전공자들의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정승원, 오세일, 이용주, 최석태, 박정선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곡가들의 창작합창곡이 연주된다. 우선 부산시립합창단의 위촉을 받은 작곡가 정승원, 오세일, 최석태가 역시 '신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부산다아울림합창단 지휘자이자 신라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작곡가 정승원의 '아리랑 아리요'에 이어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세일의 '노들강변',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자로 있는 최석태의 '닐리리아'가 초연무대로 관객들과 만나며, 이밖에 오페라음악극 '윤동주'에 수록된 이용주 작곡 '별 헤는 밤',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작곡가 박정선의 '각설이타령'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서민성 / 동래 아리랑
이소진 / 태평가
정혜빈 / 삼살개타령
황하영 / 꼴망태 아리랑
김은진 / 복조리타령
홍기영 / 정어리타령
정승원 / 아리랑 아리요
오세일 / 노들강변
이용주 / 별헤는 밤
최석태 / 닐리리아
박정선 / 각설이타령

· 지휘 / 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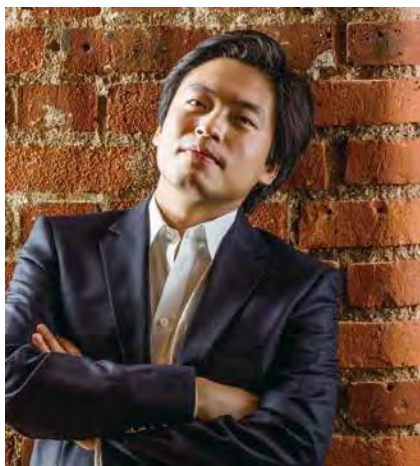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부터...

지휘 정민



피아노 김선옥



세계 권위의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선옥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부터...'가 11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1.25(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정민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교향곡에서 손꼽히는 명작인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비롯해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슈만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54' 등 웅장한 하모니와 낭만적인 선율로 저물어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지난 2007년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부산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며 본격적인 지휘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휘자 정민은 탁월한 리더십과 음악성으로 지난 2010년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의 뉴욕 카네기홀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로도 활동한 정민은 일본 규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치바 현 청소년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중국 항저우 시립교향악단,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랑카 오케스트라, 볼자노 하이든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곡인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에 이어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54번'이 피아니스트 김선옥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이 곡은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이자 부인인 클라라의 요청으로 작곡된 곡으로, 1846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클라라의 협연으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피아니스트 김선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 외에도 독일 에틀링겐 국제피아노콩쿠르(2004),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피아노콩쿠르(2005)에서 우승했으며 2013년에는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 세대 연주자 중 가장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김선옥은 그동안 런던 심포니(다니엘 하딩, 존 엘리엇 가디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정명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마렉 야노프스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사카리 오라모, 앤드류 맨지, 투간 소키예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유라이 발추하, 에드워드 가드너), 런던 필하모닉(바실리 시나이스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정명훈), NHK심포니(갈-하인즈 스테픈), 할레 오케스트라(마크 엘터) 등과의 협연으로 주목받았으며, 2014년에는 본머스 심포니 협연으로 BBC프로스에 데뷔했다. 김선옥은 독주자로서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와 본 베토벤 하우스, 프랑스 파리 필하모니, 영국 위그모어 홀과 퀸 엘리자베스 홀, 부에노스 아이레스 테아트르 콜론, 프랑스 라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브뤼셀 클라라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정기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이자 연주회 타이틀인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는 베토벤의 '운명', 차이코프스키의 '비창'과 더불어 최고의 교향곡으로 꼽히는 곡 중 하나로, 특히 제2악장의 향수를 달래는 듯한 명선율은 '꿈속의 고향' 등 여러 이름이 붙어서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월빙콘서트 IV '독일 음악 여행 II'

지휘 조성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월빙콘서트' 마지막 무대가 12월 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12.2(금)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바이올린 김응수



현재 중국 무한음악원(WHCM)동방교향악단 상임지휘로 있는 지휘자 조성화가 지휘하고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 서귀포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백민정의 협연,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악성 베토벤을 비롯해 독일 낭만 오페라를 정립한 '독일 가곡의 아버지' 베버,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 독일 가곡의 기초를 세운 '가곡의 왕' 슈베르트 등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하고 파리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객원단원, 프랑스 시메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런던의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오프닝 콘서트에서 한국 작곡가 진은숙의 피아노 에튀드를 연주해 '내면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수성, 뛰어난 테크닉이 어우러진 연주'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던 피아니스트 백은정은 Worshipful Company of Musicians의 금메달 수상, 2012 유럽 베토벤 소사이어티 국제콩쿠르, Ernesto Falla 국제콩쿠르, Nuovi Orizzonti 국제콩쿠르, 라흐마니노프 국제콩쿠르 우승 등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국민 오페라의 기원이 되는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을 시작으로 브람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 중 제1악장, 19세기 독일 낭만파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2번 내림마단조 작품 74' 중 제2, 3악장,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이라 일컬어지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내림 나장조 작품 33' 중 1악장, 슈베르트다운 쾌활함과 명량함이 느껴지는 '로자문데 서곡 작품 644'를 들려준다.

클라리넷 장재혁



객원지휘자 조성화는 베이징 중앙음악원 지휘과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22세의 나이에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미셸 플라손의 보조지휘자로 발탁된 후 중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중국 국립오페라하우스, 광저우 심포니오케스트라, 쿤밍 심포니오케스트라, 중국 유스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바이올린의 거장 티보르 바르가로부터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호평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8월, 유럽 왕족들과 VIP들이 찾아오는 오스트리아 레히클레시페스티벌의 예술감독 및 연주자로서 활동하며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 '월드스타의 탄생'이라는 극찬을 받는 등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백민정



클라리넷 장재혁



2016 부산오페라 WEEK

2016 BUSAN OPERA WEEK

뉴아시아오페라단 해설이 있는 송년오페라 갈라콘서트 'The Last Propose'

일시 및 장소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 R 7만원 / A 5만원 / B 3만원

문의 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

베네치아 라 페니체 국립극장 · 파르마 왕립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일시 및 장소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4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S 18만원 / A 13만원 / B 8만원 / C 5만원 / D 3만원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20주년 기념 '라 트라비아타 인 콘서트'

일시 및 장소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 7만원 / S 5만원 / A 3만원 / B 1만원

문의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부산광역시가 2020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 건립을 기원하고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6 부산오페라 WEEK' 무대가 12월 2일부터 부산문화회관과 영화의전당, 금정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그랜드오페라단과 올해 초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오페라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솔오페라단, 지역과 국가를 넘어 아시아 각국의 오페라 및 다양한 음악공연을 교류해온 뉴아시아오페라단이 참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제작진이 참여하는 대형 오페라 무대에서부터 오페라 갈라콘서트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뉴아시아오페라단 갈라콘서트
'The Last Propose'



솔오페라단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그랜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인 콘서트'

2016 부산오페라 WEEK의 화려한 막을 여는 주인공은 뉴아시아오페라단(예술총감독/그레이스 조)으로, 해설이 있는 송년오페라 갈라콘서트를 마련한다. 12월 2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랜드조이아뮤직 예술감독, 월드엔젤피스예술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손민수의 지휘, KNN 정희정 아나운서의 해설로 소프라노 류진교, 전지영, 왕기현, 김아름, 메조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강훈, 장지현, 문한솔, 바리톤 김기환, 베이스 권영준 등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와 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 네 오페라오케스트라가 출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보엠', '돈조반니', '나비부인', '리골레토', '투란도트' 등 명작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12월 3일과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솔오페라단이 기획하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살아있는 전설 라페니체 국립극장과 베르디의 숨결이 남아있는 파르마 왕립극장이 공동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가 관객과 만난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와 더불어 베르디의 3대 걸작이라 불리는 '일 트로바토레'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박력있고 열정 넘치는 작품이다. 중세 기사들의 삶을 소재로 한 스페인의 동명희곡을 바탕으로 작곡된 '일 트로바토레'는 15세기 초 스페인의 비스케이와 아라곤 지방을 무대로, 황포스러운 영주의 박해를 받는 집시여인의 처절한 복수와 함께 영주의 아름다운 시녀와 트로바토레(음악시인)의 사랑을 다룬 사랑과 복수의 비극적 드라마이다.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음악표현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 잔루카 마르티넨기가 지휘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 로렌조 마리아니가 연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폭넓은 음악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음색으로 이 세기 떠오르는 소프라노로 사랑받고 있는 라나 코스, 화려한 음색과 관중을 사로잡는 짙은 호소력의 부산이 낳은 소프라노 김유섬, 세계적인 라스칼라 극장의 주역으로 활동 중인 최정상급 바리톤 엘리아 파비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연기로 무대를 압도하는 바리톤 박대용,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영혼을 울리는 테너 김지호, 경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관중을 사로잡는 테너 장진규, 호소력 짙은 음색의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뛰어난 목소리와 타고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이탈리아 최고의 베이스 잔루카 브레다 등이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는 부산공연에 앞서 11월 25일과 26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다.

12월 7일 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그랜드오페라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 '라 트라비아타 인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탈리아 스폴레토 스페리멘탈레극장 상임지휘자, 페루지아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카를로 팔레스키(Carlo Palleschi)가 지휘하고 코리아콤포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로 평가받으며 유럽 본토에서 인정받은, 주인공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박현주를 비롯해 2010년 독일 오스나브뤽 테아터에서 '라 트라비아타' 공연 후 음악지 '피가로'로부터 '젊은 시절의 도밍고를 연상케하는 목소리'라는 평을 받은 테너 김충희(알프레도), '동양의 피에로 카푸칠리'로 불리며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로부터 인정받은 바리톤 석상근(제르몽),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경임(플로라), 소프라노 신영정(안니나), 테너 박의준(가스톤), 베이스 유지훈(두플남작), 박동석(도비니후작), 길은배(그랑빌의사), 테너 서강천(주셉페), 바리톤 홍현준(메신저, 도메스티코)이 출연, 불같은 사랑과 비극적 운명을 노래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50명의 국립합창단과 54명 풀 편성의 코리아콤포오케스트라가 펼치는 수준 높은 메머드급 공연으로, 극의 감동을 더해준다.

Review

그의 글은 노래가 되며, 그의 음악은 가슴을 적신다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정두환 음악평론가

32

세계 정상급의 주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하며 동시에 다양한 앙상블의 바이올리니스트 및 음악감독을 겸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니엘 호프와 현재 세계에서 뛰어난 해석을 하는 연주팀으로 손꼽히는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나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그들이 품고온 곡은 비발디 '사계' 중 '여름 RV.315'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단조 작품 35(피아노 협연 박종화)', 막스 리히터가 재작곡한 비발디 '사계'였다.

우선 다니엘 호프는 '박수는 언제 쳐야 할까요?(문학세계사, 2010)'라는 책을 내면서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저자로서도 인기가 많다. 클래식 음악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위대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그 자신도 작곡가였는데, 하루는 그 위대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곡은 짧고 가볍고 대중적으로 써라. 아무리 둔감한 사람의 귀도 간지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p.55)'. 그의 진솔한 음악을 책에서 만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둔감한 사람의 귀도 간지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날 연주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음악 앞에서는 잠을 잘 수도,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주지 않았다.

먼저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은 다니엘 호프의 화려한 테크닉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앙상블의 힘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

큼 완벽한 앙상블을 유감없이 펼쳤다.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가 그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면서 특히, 2악장의 Adagio-Presto에서 느낌과 함께 나타나는 다이내믹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비발디의 현악은 서로를 배려하며 의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음형이 흐트러질 확률이 높으며,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이내믹에서 박진감과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주는 서로를 향한 한없는 신뢰로 음악 속에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관객으로 하여금 적당한 긴장감과 조금의 휴식을 삼없이 반복하면서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진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협연한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단조 작품 35'는 천재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지휘자 없이 함께하는 음악에서 서로의 호흡에 의지하며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템포와 다이내믹의 대비, 테크닉의 대비 등에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서로를 향해 절제하면서도 함께 풀어내어야 할 대목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드러낼 수 있는 힘, 이는 절제의 미학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특히, 트럼페터 브루스 배리와 함께하는 대목에서는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둔탁한 듯 유연하게 뿜어져 나오는 트럼

펫의 소리가 더해지면서 음악은 절정에 다가갔다.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는 피아노 연주력은 박종화 특유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힘이었다. 이어진 앵콜에서 그는 '아리랑'을 편곡한 피아노곡을 선사하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의 음악에서 시원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전해지는 음악의 힘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준 막스 리히터가 재작곡한 비발디 '사계'에서는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그들의 변화무쌍한 음악만큼이나 막스 리히터의 음악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만남은 비발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해석의 음악으로 재탄생되었다. 다양함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함이 곧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모토가 'RES SEVERA VERUM GAUDIUM(진정한 즐거움은 진지한 즐거움이다)'이다. 이 모토가 오늘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가 우리에게 전해준 음악이었다. 그는 책 '박수는 언제 쳐야 할까요?'에서 말한다.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가 두려워 공연장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박수를 쳐도 됩니다." 혹은 실수하면 어떻게! 공연장을 오지 않으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음악인 것을...

Review

클래식의 한류를 기대한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클래식 향연'



박진홍 음악평론가

10월의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부산비엔날레, 자갈치축제 등 삶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도시가 된다. 10월 초부터는 또 하나의 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부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필자는 그중 10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클래식 향연'을 찾았다.

이날 연주는 현재 멕시코시티 필하모닉과 페스티벌 모자익의 예술 감독이자 수석지휘자인 스캇 유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고,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첼리스트 비온 창,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협연자로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첫 곡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최성환 편곡의 '아리랑'이 연주되었다. 오랜만에 듣는 작품이어서 그런지 친숙한 가락에 북쪽의 독특한 색채가 새삼 생경하게 다가왔다. 군더더기가 없고 들뜨지 않는 연주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연주였다.

두 번째 곡은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의 협연으로 라벨의 '치간느'가 연주되었다. 후미야키는 긴 전주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무겁고 거친 연주를 보여주었고, 이어지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주에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주를 보여주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흘러거나 감춤이 없이 음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연주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명쾌함을 느끼게 하였다.

세 번째 무대로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했다. 흐트러짐이 없고 날렵하지만 담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힘이 넘치는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조심스레 음악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 같은 부드럽고 유연한 매력이 느껴졌다.

후반부 첫 곡으로는 베토벤의 '로망스 제2번'이 연주되었다. 이날의 지휘자, 스캇 유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리드하였다. 스캇 유의 바이올린 연주는 오랜 시간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살아온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다. 하지만 그의 지휘나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오케스트라와 잘 섞이지 않는 어색함이 있었다.

이어서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중국 출신의 미국 첼리스트 비온 창이 연주했다. 그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빠져들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감성적이기보다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연주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렸다. 감정은 잘 감추어두고 무심한 듯 흘러보내는 연주가 듣는 이로 하여금 명상에 잠기게 하였다. 연주에 몰입은 했으나 음악에 빠져 있지 않고 멀리서 관조하며 생각하게 하는 연주였다.

마지막 작품으로 라벨의 '볼레로'가 연주되었

다. '볼레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지만 주제 가락이 악기와 그 구성을 바꾸어 가며 반복되어 다소 지루함을 줄 수 있는 곡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했다. 연주는 훌륭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자들은 탄탄한 기량으로 흐트러짐 없이 각 악기의 특색을 잘 보여 주었고,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연주에 객석을 찾은 국내외 음악 애호가들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날 연주는 솔리스트들의 멋진 기량과 각기 다른 음악적 개성을 가진 연주자를 받아들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포용력이 잘 융화된 연주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주를 작은 계기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클래식에서도 한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더욱 크게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창작무용극 '월상하란(月上賀蘭)'과 회족



서인화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중국 회족 창작무용극 '월상하란'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로 10월 15일,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한류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아시아의 서양클래식과 민족음악, 그리고 '월상하란' 등을 편성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방면의 공연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고자 한 것 같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광대한 중국의 여러 지역 작품 중에서도 왜 하필 이 작품을 초청했을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사업단 윤정국 단장에 따르면, 한·중 수교 24주년을 기념하여 중국문화원에 실크로드와 관련된 작품을 연결해 줄 것을 청했다고 한다. 결국 중국문화원에서 이 공연을 추천했고, 항공료를 중국에서 대고 체재비를 한국 측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개런티 없이 교류공연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

'월상하란'은 중국 북서부 황토 고원에 자리한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区)의 수도, 은천시(銀川市)의 예술극원에서 2007년 초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형 창작 무용극이라고 소개되었다. 실제 40명 가량이 출연하여 해외 공연 출연진으로서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섬세한 표현이나 기량보다는 역시 군무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경향이 컸다.

전체적으로 발레와 중국 전통극의 표정이나

곡예적 동작을 사용하는데, 역경을 표현하는 남성 무용수들이 전신을 흔들고 돌리는 역동적인 동작, 집단적 칼춤, 남성 무용수들이 띠를 이루어 고통을 표현하는 안무, 여성 무용수들이 평원의 사랑스러운 꽃밭의 풍경과 사랑의 은하수 혹은 물길을 표현하는 동작과 조명 등이 박수를 받았다. 그밖에 무대 전체에 밤 하늘의 별을 뜨게 한 것이나, 마지막에 이슬람 사원의 아름다운 곡선 모양의 흰 막을 사용한 것도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달밤에, 사막을 지나던 서역 상인 무리가 모래폭풍과 도적떼를 만나 어려움에 빠지고 그 가운데 무리의 젊은이와 하란산 평원의 현지 소녀의 사랑이 싹터, 역경을 거쳐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상인 젊은이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아 장례식이 치러지며, 사랑하는 아들이 하란산자락 평원에 정착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줄거리는 중국 회족의 전형적인 이주와 정착의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월상하란'은 닝샤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서 회족의 역사랄까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상품이라고 평가된다. 이곳의 와인 중에 'Moonlight upon the Helan Mountain', 즉 '월상하란'과 흡사한 뜻을 가진 와인이 있는 것을 보면 닝샤의 이미지를 일관성있게 구축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 와인에도 이 작

품에서와 같이 사막에 초승달이 떠 있다.

닝샤에는 회족이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회족은 닝샤뿐 아니라 시안(西安) 등 많은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끈다. 회족의 역사는 서기 7세기 중반 당나라 때부터 아랍인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설명된다. 특히 서기 13세기 초반 몽골 군대가 쳐들어오자 동쪽으로 이주해온 중앙아시아의 여러 종족들이 직접적인 회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회족은 같은 무슬림인 위구르족과는 달리, 대개 한족의 문화에 흡수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회족과 같은 무슬림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문학에도 등장하여 더욱 반갑다. 고려가요 '쌍화점(雙花店)'에 회족의 명칭으로 여겨지는 '회회(回回)'가 등장하는 것이다.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回回)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공연 팸플릿을 보면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 중에 회족 외에도 조선족, 만주족, 몽고족 등이 참여했지만, 회족의 이주와 정착의 삶을 그린 중국 문화상품 '월상하란'은 회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한다. 결국 문화상품은 다른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지 색깔의 하모니

Harmony of Four colors

Spirituals
Jazz
Acappella
Chorus



2016. 11. 22(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균일 2,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 공연운영팀 607-3146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들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_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_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제3회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강학윤 010-9287-6350



지난 2011년 개설된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노래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과 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

려준다.

[프로그램]

신아리랑, La Wally, 물방아, Nessun dorma, 내맘의 강물, IL Bacio, 신고산타령, 가고파, non ti scordar di me 등 수곡

- 지도교수/강학윤
- 반주/주은정
- 소프라노/박순희, 박혜정, 김순희, 윤동자, 공태숙
- 메조소프라노/이순옥, 손봉례
- 테너/박상천, 양수배
- 바리톤/배용, 박인재

김희영의 두번째 가야금 독주회 Esperanza/희망

일 시 |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희영 010-3534-509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정단원으로 있는 가야금주자 김희영의 두 번째 독주회.

제14회 진해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금상을 수상한 김희영은 올해 6월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

무대 '예인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 바 있다.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무대는 가야금 연주뿐 아니라 무용, 영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가 함께하는 종합예술무대로, 태초의 자연, 평화, 파괴, 정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 태초의 자연/창작무용 '비향'(飛香, 悲香)
- 평화/12현 가야금 독주곡 '최옥산류 가야금 산조'
- 파괴/25현 가야금 독주곡 '소나무'(미키 미노루 곡)
- 정화/25현 가야금과 거문고 중주곡 '청우'(계성원 곡)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풍물 예술봉사단 제6회 정기발표회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41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이 운영하는 풍물반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봉사활동을 펼쳐온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의 6번째 정기발표회.

지난 1998년 창단한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은 그동안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시모노세키 초청공연, 세계체육대회 식전행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청공연을 비롯 동구노인복지관, 우리병원, 그리스도요양원, 감천동 애이원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 비나리, 가락장구, 삼도사물놀이, 영남농악, 선반설장구, 웃다리풍물, 판굿
- 지도/최의철(이바디예술단 대표)
- 특별출연/김용성(태평소, 부산중앙국악원 부원장)
- 찬조출연/부산여성문화회관 풍물 수련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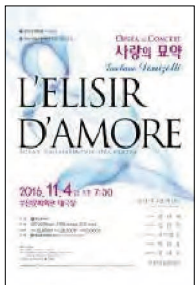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기존 오페라의 무대세트 등 고가의 연극적 장치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소품과 의상으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해온 특별한 무대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해까지 '오페라 그라츠'에서 객원지휘자로 활동한 아르헨티나 태생의 지휘자 호세 미구엘 예산디가 지휘하고 '바이로이트의 영웅'으로 세계무대에 우뚝선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윌.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임선혜, 지난 7월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젊은 음악가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오페렐리아 국제오페라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테너 김건우,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용, 소프라노 김시하,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제3회 PBC부산평화방송 가톨릭성가제

일 시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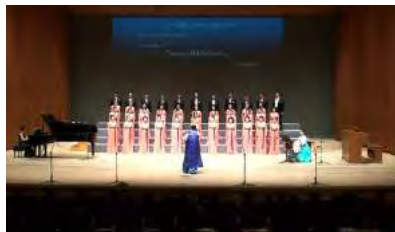
문의 | PBC부산평화방송 600-8800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성가제에서는 부산, 경남지역 11개 성가대가 출연, 다채로운 성가의 향연을 펼친다.

출연팀

- 남양산성당 아멘(지휘/김정웅), 우정성당 그레고리오(지휘/차상옥), 물음대성당 하늘꽃(지휘/권영옥), 금정성당 바오로(지휘/장진규), 하단성당 엠마누엘(지휘/이경준), 이기대성당 성요셉(지휘/조현수), 사하성당 살롬(지휘/송규림), 모라성요한성당 스텔라(지휘/이신호), 동대신성당 남바라기(지휘/김지현), 옹호성당 한마음(지휘/최금화), 온천성당 라우나떼(지휘/장은영)

- 축하공연/복산성당(제2회 대상 수상팀)



라메르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더 클래식 I'

일 시 | 11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라메르오케스트라 627-5665, 010-5566-5332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온 라메르오케스트라의 제11회 정기연주회.

지난 1998년 창단된 라메르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청소년 음악교육 및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공연,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명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 도플러/헝가리 전원환상곡
- 슈베르트/미완성 교향곡 등
- 예술총감독/이재석
- 지휘/최봉은
- 협연/황미리(플루트), 왕기현(소프라노)
- 연주/라메르오케스트라
- 사회/박근아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52



지난 1994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과 문화소의 계층을 위해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온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여성합창단의 20번째 정기연주회.

미루샘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아시안게임 기념행사 공연, 부산-후쿠오카 교류음악회, 시청 장식탑 점등식 축하공연,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연 등 공연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 및 가요, 민요 등을 들려준다.

- 지휘/한정현
- 피아노/최승희
- 찬조출연/골든브라스 금관5중주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일 시 |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41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이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가야금, 민요판소리, 풍물, 한국무용, 서예, 기타연주 등 6개팀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 민요판소리, 풍물, 한국무용, 기타연주 등 5개 예술봉사단이 출연, 저마다 갖고 있는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Let Me Be Three, 바다새(기타연주), 춘화무(한국무용), 춘설(가야금), 사출가(민요판소리), 부채춤(한국무용), 선반설장구(풍물), 화초타령(가야금), 농부가(민요판소리), 한량무(한국무용), 판굿(풍물)

제14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 합창단협의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우회라 010-4556-6703

부산 16개 구군 여성합창단 연합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의 2016년 정기연주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는 지난 2002년 창립 이후 매년 1회 연합창단을 구성, 다양한 합창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윤정운의 지휘로 국내외의 가곡 및 가요, 민요, 팝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윤정운
- 반주/이현주



2016 부산국제연극제 고 월드 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몽키 댄스

일 시 | 11월 10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 경연부문 '고 월드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난버벌 아카펠라 퍼포먼스 공연 '몽키 댄스'. 지난달 개최된 '2016 부산아시아페스티벌'의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 공연으로 선정되기도 한 '몽키 댄스'는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을 극적 요소에 붙여넣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마살 아츠 퍼포먼스팀 'WINS'와 뮤지컬 컴퍼니 캐리 프로젝트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음악과 신체적 움직임의 앙상블을 통한 새로운 장르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 협력연출/김현묵

2016 합창 생활문화예술제 평화 대합창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합창연합회 920-9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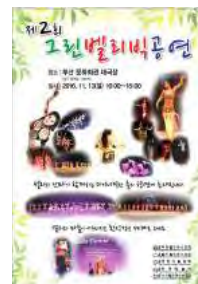
(재)부산문화재단과 부산합창연합회가 6·25 전쟁 UN전사자의 희생과 한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하는 추모공연 '평화 대합창'.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맞춰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과 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영기)이 함께하는 연합소년소녀합창 무대에 이어 그 뜻에 동참하는 시민 1,111명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의 평화 시민대합창이 펼쳐진다.

- 예술감독/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2회 그린벨리빅 공연

일 시 |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경벨리댄스협회 803-8838



벨리댄스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벨리댄스 전문지도자를 양성, 벨리댄스를 웰빙 스포츠댄스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부경벨리댄스협회가 마련하는 제2회 그린벨리빅 공연.

그동안 380여 차례 국내 및 해외공연을 통해 벨리댄스를 소개해온 (사)부경벨리댄스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가진 데 이어 매년 정기공연을 가져나갈 계획이다.

이번 무대는 벨리댄스뿐 아니라 모든 댄스가 어우러지는 퓨전형태의 공연으로 벨리댄스와 난타, 마술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제20회 새물결 춤 작가전

일 시 | 11월 15일(화)~16일(수)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무용협회 632-5116



부산무용계의 내일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차세대 춤꾼들이 마련하는 창작의 장 제20회 새물결 춤 작가전.

특히 새물결 춤 작가전은 2014년부터 경연방식을 도입하면서 올해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단체는 내년 열리는 2017 부산무용예술제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받는다.

15일 프로그램

봉길씨어터 '경상도 아가씨'(안무/전현우)

이태상 댄스프로젝트 'Rain Prayer'(안무/이유진)

정성복 N발레단 '여행자'(안무/정성복)

16일 프로그램

정신혜 무용단 '까꼬막'(안무/박성아)

준 댄스컴퍼니 '사라질 생명의 목록, 그 마지막 Chapter'(안무/모란)

경희 댄스씨어터 '소녀'(안무/김정은)

부산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

날과 줄/높은 여자

일 시 | 11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01, 3154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라는 화두를 소실점에 병치시켜 현재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개의 작품을 선보이는 부산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

전통춤인 '검무'를 재해석한 1부 '날과 줄'에서는 그동안 여성 무용수들에 의해서 주로 공연되어왔던 검무를 남성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이미지화시켜 강인하고 남성적인 무예로 재해석한다.

'봉산탈춤'의 해체를 시도한 2부 '높은 여자'는 '봉산탈춤' 중 미알과정을 소재로, 미알함몰이 가진 과거 민중 속에서 전승된 전통연희의 놀이적 성격을 현대적 언어로 치환시켜 다양한 춤 장르와 소리,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안무/김용철 • 연출/김용선 • 대본/김관용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가톨릭합창단 010-3850-6153



지난 1982년 3월 부산교구 연합 성가대로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창단된 부산교구소속 직속 합창단인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합창 지도교수, 르보야즈 보컬레 앙상블(Le

Voyage Vocale Ensemble), 부산가톨릭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성훈이 지휘하고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스포르노 강혜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세일문화재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현재 부산가톨릭합창단 반주자, 르보야즈 보컬레 앙상블 반주자로 있는 오르가니스트 이효진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RV 63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RV 595를 비롯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성가곡을 들려준다.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일 시 | 11월 20일(일)~25일(금)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수험생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문 의 | 스토리팜 010-6833-5880



로맨틱 드라마 전문 여자 작가와 코미디 전문 남자 감독의 티격태격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

영화사로부터 제안받은 로맨틱 코미디극 시나리오를 위해 남자 감독과 여자 작가가 한 집에 살게 된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남과 여. 과연 감독과 작가는 이 어색한 동거를 무사히 끝내고 할 달 안에 기막힌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는 부산 연극의 대표작 '열대야와 '중인들', '청춘포차', '원탁의 기사'의 작가 오승일 작품으로, 초연 후 5번째 앵콜 공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작/오승일
- 연출/이명건
- 출연/손미나, 문성운, 최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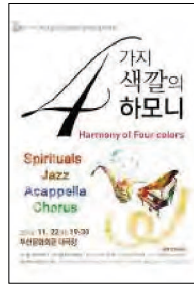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네 가지 색깔의 하모니

일 시 |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08, 3146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합창음악으로 꾸미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네 가지 색깔의 하모니(Harmony of four colors)'.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지휘하고 가수 이철규, 정관초등학교 합창단, 영도중학교 합창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클래식, 아카펠라, 흑인영가, 재즈 등 4가지 색깔의 합창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가수 이철규는 지난 2006년 발매한 헤리티지 앨범 1집 'ACOUSTIC & VINTAGE'로 한국대중음악상 알앤비 소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86년 역사를 지닌 정관초등학교의 노래하는 동아리로 창단된 정관초등학교합창단(지휘/차은희, 반주/장윤선)은 2014년 창단 후 다수의 무대에서 청소년 합

창을 알리는 데 노력했으며 2014~15년 부산119소방동요대회 대상, 2014년 전국119소방동요대회 은상, 2015년 전국119소방동요대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3월 창단된 영도중학교합창단(지휘/박우정, 반주/김보민, 김미주)은 합창을 통한 신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함께 이름답고 수준 있는 무대로 감동을 함께 전하는 합창을 들려주고자 40여 명의 단원들이 노력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Ave Maris Stella(그리곡), The Lord bless and keep you(존 루터 곡), 베네딕투스와 할렐루야(하이든 곡)

정관초등학교합창단/비람의 빛깔(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 꼭 안아줄래요(윤하준 곡), 말의 향기(조원경 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Seasons(Ola Gjeilo 곡), Will there really be a morning?(Craig Hella Johnson 곡), 친구야(이호준 편곡) 가수 이철규/Oh happy day!(영화 '시스터액터' OS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with 이철규/Turn me round, I am His child, Music down in my soul(Moses Hogan 곡)

영도중학교합창/아름다운세상(이선택 편곡), 풍선(황수진 편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It's bebop(Kirby Shaw 곡), Salsa picante(Kirby Shaw 곡), Canta(박준모 편곡)

• 지휘/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여명의 빛**

일 시 |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 의 |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
 010-6755-2751



지난 2008년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창립과 더불어 유나이티드 챔버앙상블로 첫발을 내딛은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상임지휘자 김봉미와 국내외 80여 명의 전문음악인으로 구성된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힐링'과 '웰빙'을 모토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생활 클래식 문화를 추구해왔다.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베버/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사냥꾼의 합창'
- 시벨리우스/핀란드아 등 수곡 등
- 지휘/김봉미
- 협연/소프라노 김인혜, 테너 이동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메트로페라앙상블(단장/이우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우리웃, 우리춤, 우리가락...전통의 힘! **제1회 한국의美 & 樂 페스티벌**

일 시 |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제1회 한국의美 & 樂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한복디자인어 이영애가 총감독을 맡고 모델 시앤티 대표 이범권의 연출로 궁중복식에서부터 민속복식, 창작복식 등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TBN교통방송이나 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을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아리랑 K-Tigers 시범단이 출연, 가무악(歌舞樂)의 향연 속에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합창과 함께하는 **'우리의 노래'**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창단이 한국창작합창과 함께하는 제164회 정기연주회.

작곡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합창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만생(신라대학교), 이소진(인제대학교), 정혜빈(경성대학교), 황하영(부산대학교), 김은진(동아대학교), 홍기영(경성대학교)의 젊은 무대에 이어 중견 작곡가 정승원, 오세일, 이용주, 최석태, 박정선의 창작 합창곡이 소개된다.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부터...**

일 시 |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세계 권위의 리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최연소 우승한 후,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부터...'.

도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정민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교향곡사에서 손꼽히는 명작인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비롯해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슈만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54' 등 웅장한 하모니와 낭만적인 선율로 저물어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 지휘/정민
- 협연/피아니스트 김선욱
- 객원 악장/유희승(빈 국립 포스오퍼 중신 부악장)

제3회 예그리나합창단 정기공연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예그리나합창단 010-4567-6527

현직에서 은퇴하고 합창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훈성4부 실버합창단인 예그리나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2014년 10월 국립합창단이 주관하는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 부산대표로 참가한 데 이어 2014년과 2015년 부산합창제에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예그리나합창단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국 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세 차례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함께 살아있음의 기쁨을 노래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살아 숨 쉬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 지휘/강종철(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반주/이현숙



제48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Wiener Klassik II**

일 시 |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지난 1996년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유능하고 열정있는 연주자들로 창단된 법인에술전문교향악단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47차례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보내기 등 자선음악회, 공기관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 모차르트/교향곡 제35번 '하프너'
- 슈베르트/'이탈리안 스타일' 서곡
- 슈베르트/교향곡 제3번
- 지휘/윤상운(동인대학교 교수)

김경수 피리독주회
바람의 흐름 IV

일 시 |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경수 010-5481-86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수석, 창원국악관현악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국악 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의 피리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 박사 과정을 졸업한 김경수는 지난 2010년 제1회 피리독주회 '樂을 통하여 我를 보다'를 시작으로 2013년 제2회 피리독주회 '바람의 흐름', 2014년 제3회 독주회를 펼친 바 있다.

[프로그램]

김경수(편곡)/일편명월(一片明月)

최재호/백음(白音)

강상구/푸른 고래의 꿈

김경수(구성)/호적 풍류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4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가곡'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KNN 홈페이지에서 초대권 신청)

문의 | KNN 850-9566, 9568



미래 세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강림문화재단이 매년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회로, 교육적이면서도 유쾌한 클래식 명곡을 모아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네 번째 무대.

마에스트로 오종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신동원, 바리톤 최중우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1920년 작곡된 우리 가곡 1호 흥남파 선생의 '봉선화'에서부터 1930년대 근대적 가곡, 1940년대 예술가곡, 그리고 2000년대 현대 가곡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한국의 가곡'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노래가 인생인 아름다운 프리마돈나' 고예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

르 1등, 다부르쵸 국제콩쿠르 1등, 조반니 칸파디리 국제콩쿠르 1등, 마리오 델모나코 국제콩쿠르 우승 및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현존하는 최고 드라마틱 테너' 신동원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 도미, 미국 인디애나대음대, 필라델피아 The Academy of Vocal Arts를 졸업하고 영국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오페라 '아이디' 라다메스역으로 데뷔한 후 세계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무대 위의 신사' 바리톤 최중우는 경희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이태리 코모 음악 아카데미 전문성 악연주자과정, 제노바 왕립 음악 아카데미 최고 오페라 가수과정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를 비롯 이태리,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다.

- 예술감독, 지휘/오종근
- 협연/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신동원, 바리톤 최중우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 수영지신밧기
인간문화재 인정 기념공연

그 시절 수영지신밧기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수영지신밧기보존회 752-2947, 010-5133-3015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수영지신밧기' 악사 장구 예능보유자인 김기출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고 예능보유자로서의 인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그 시절 수영지신밧기'.

부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남구청풍물패, 시청풍물패 등 6개의 풍물패를 창단하기도 한 김기출은 김태춘, 도태일 선생으로부터 쇠를, 김태룡 선생으로부터 장구를 배우며 수영민속보존회 활동을 시작, 그동안 수영지신밧기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그램]

잡가, 장구가락, 부채춤, 당산풀이, 우물풀이, 성주풀이, 소고춤, 대문풀이, 북춤, 한마당놀이

- 사회/배현열(수영지신밧기보존회 회장, 예능보유자)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12일, 26일 공연 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1월 5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설장구 가락(설장구/전학수, 이주현, 송강수, 최오성, 박재현, 김인균)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와 여사 상봉대목'(판소리/정선희, 고수/최오성)

경기민요 '정선아리랑, 노랫가락, 태평가, 뱃노래, 잣은 뱃노래'(민요/이소정, 대금/손한별, 피리/정주

아, 해금/강민정, 아쟁/최영훈, 가야금/정미자, 장구/장미진)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판소리/박성희, 고수/송강수)

도당굿과 시물놀이(장구/박재현, 팽과리/이주현, 징/김인균, 바라/송강수, 북/최오성)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농부가, 진도아리랑'(민요/박성희, 정선희, 타악/박재현, 이주현, 김인균, 송강수, 최오성, 대금/손한별, 피리/정주아, 해금/강민정, 아쟁/최영훈, 가야금/정미자)

- 음악감독/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해설/백규진

11월 1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연주회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가을' 제1악장
하이든/현악4중주 제62번 '황제' 제2악장

드뷔시/현악4중주 제2악장

드보르작/유모레스크

헨델/리날도 중 '올케 하소서'

바흐/G선상의 아리아

몬티/차르다시

여쿠스틱 카페/라스트 카니발

- 바이올린 I/조은비
- 바이올린 II/김만실
- 비올라/박성은
- 첼로/정지은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균일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

2일 서선미리 플루트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기악학부 및 동대학원, 영국 로얄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서울 예술고등학교 마스터클래스 강사로 있는 플루티스트 서선미리의 무대.

- 비올라/김정희
- 피아노/이승연

9일 Piano Plus '어린이를 위한 노래' for piano 4 hands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있는 신애정,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한세대학교 피아노교수 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부교수

로 있는 이윤정,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Mozarteum 국립음대 연주석사 및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부산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성민주 등 3인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무대.

성민주, 신애정이 비제의 '어린이의 놀이 작품 22'를, 성민주, 이윤정이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작품 71a'를 들려준다.

16일 효원성악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여행'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자(91학번~00학번)로 구성된 효원성악회의 무대.

- 회장/채범석
- 지휘/김성복
- 테너/김정권, 박현민, 양승엽
- 바리톤/오세민, 최대우, 윤풍원
- 베이스/조창현

23일 윤지영 피아노 독주회

'Fantastic Night:판타지와 함께하는 가을 밤'



탄탄한 아카데미즘의 바탕 위에 호소력 짙은 음악성을 겸비한 윤지영은 지난 2015년 귀국한 후 서울과 부산에서 귀국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과 함께 경성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동주대학, 부산예고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판타지 올림반단조 작품 28

쇼팽/판타지 비단조 작품 49

모차르트/판타지 라단조 K.397/385g

슈베르트/판타지 다장조 D.760 'Wanderer Fantasy'

30일 토다와 함께하는 이기녕 작곡 콘서트



록과 국악, 클래식, 보컬 등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현대 음악을 지향하는 밴드 '토다'는 연주자이자 프로듀서인 동의대학교 이기녕 교수를 주축으로 기존의 전통음악 퓨전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선보여왔다.

프로그램

2016 가을, 幻影 for 해금, 첼로, 기타, 암명(暗鳴) (confusion into clarity), 잃어버린 풍경 PART 1 (lost view), 끝을 넘어(beyond the end), 흥노리, 무상, 호포가는 길, 파사칼리아(pasaacaglia), 아리랑

- 출연/이기녕, 윤형성, 진형준, 정영준, 윤해승, 정우진, 김유리, 최은정, 변진혁, 허유진, 이기훈, 박홍준

2016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실내악으로의 초대'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3층 1만원

문의 | BWPO 850-9568

...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올해부터 마련하는 실내악의 향연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실내악으로의 초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웨인 린을 비롯해 KNN방송교향악단 악장 양경아, 대만 타이난국립예술대 학장 바이올리니스트 린 후이춘 등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의 비르투오소들이 아름다운 앙상을 무대를 선사한다.

- 바이올린/웨인 린, 양경아, 린 후이춘
- 비올라/대일 김, 박예은
- 첼로/이예성, 우양 휘루
- 하프/리체이
- 오보에/이미성
- 바순/최영진
- 더블베이스/김진철
- 플루트/라채원
- 클라리넷/요코카와 세이지
- 호른/최경일

김유진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3B & appassionata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독일 베를린예술학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유진의 귀국 독주회.

베를린 'Do-Ko Chor' 합창단 반주자를 역임하기도 한 김유진은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고전대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부산듀오협회,

독우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피아노음악연구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6개의 소품 작품 118

바흐-부조니/사르네 라단조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열정'

이나영 경기민요 1집 음반 발매 기념공연 설레임 II

일 시 |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 이나영 010-2554-2400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이나영이 경기민요 1집 음반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기념공연 '설레임 II'.

스승이자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와 이수자, 강효주, 서정화, 채수현, 그리고 이나영의 제자들이 경기소리의 다채로운 맛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이춘희(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강효주(경기민요 이수자), 서정화(경기민요 이수자), 채수현(경기민요 이수자), 윤정미무용단, 이우선

피아니스트 황성훈 초청 전국 5개 도시 순회 연주회

일 시 |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이든예술기획 02-6412-3053

www.edenclassic.co.kr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연간 50여 회의 연주를 통해,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황성훈 초청 부산 연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실기최고점수로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수인 만점으로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Ecole Normale de Musique 음악원, 독일 Hannover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졸업한 황성훈은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Epinal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Jaen 국제콩쿠르, Luis Sigall 국제콩쿠르, Senigallia 국제콩쿠르, Taiwan 국제콩쿠르 등 총 41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하고 10개의 특별상을 거머쥐었다.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絃의 祝祭 '가야금과 마두금, 미술의 향연'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582-9119



지난 1996년 4월 창단된 후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지난 2010년 10월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현재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가야금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의 축제' 여섯 번째 무대로,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악단 단원이자 'Ikhhsar mongol' 전통음악단인 몽골의 유명 마두금 연주자 출론파트 초카와 국내 미술의 대가 고재영 대구 미래대학 미술컨텐츠과 교수를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해설/장명화(동아세아 민족음악교류회장)

부산YWCA 창립70주년 기념음악회 통일!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부산YWCA 441-2221, 2225



부산지역 최초의 여성·사회기관으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탈핵운동과 평화, 통일운동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공존하는 생명사랑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YWCA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

기념음악회.

부산YWCA운동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욱 친근하게 연계되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음악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수 손승연과 메인스트림 밴드(Mainstream Band), 헤븐싱어즈, CCM가수 조수아, 부산국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소리디딤(류전곡악), 탕고 누에보, 부산YWCA 전문문화연구회 옛소리, 부산YWCA 합창단 등이 출연, 음악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제24회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평화, 조화, 그리고 환희의 노래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여교사합창단 010-2974-2775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 경남지역 여교사들로 결성된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여교사합창단은 지난 1991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페스티벌, 부산합창제, 가정의 달 맞이 특별연주회, 국제합창제, 부산시교육청 음악분과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제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프로그램

- 메리 라이트/평화를 주소서(Dona Nobis Pacem)
- 롤프 로브랜드/You raise me up
-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등
- 지휘/양종모(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피아노/최지선
- 게스트/안상철(바리톤), 김란(피아노)

소프라노 이민희 독창회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M빅토리안예술단 517-0401



동덕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M빅토리안예술단 단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동의예술종합콘서타토리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이민희의 독창회.

독일 Mecklandburg vorpormen stralsund 극장 정단원을 역임하기도 한 이민희는 그동안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 오페라 주역 및 하이든 '천지창조', 바흐 '요한수난곡', 모차르트 '레퀴엠' 등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음악에, 줄라이카 I, 미봉의 노래
- 슈만/현정, 그대는 꽃처럼, 줄라이카의 노래
- 스트라우스/9월, 잠들기 전
- 비발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 등 수록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학 교수로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 독주회.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의 탁월한 해석가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슐츠는 고전음악에서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현대음악계를 이끌고 있다.

토마스 슐츠는 그동안 존 케이지, 모튼 펠드만, 크리스찬 울프, 프레드릭 쉘프스키, 얼 브라운, 조나단 하비, 나훔신, 엘리엇 가터, 윌터 짐머만, 보드윈 부킹스 등 수많은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쉘프스키, 타카하시, 짐머만, 부킹스 등에게 피아노곡을 위촉, 초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향신회 2016년 제53회 정기작곡발표회 창작실내악의 밤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향신회 010-3347-6892



지난 1974년 우리나라 서양음악 작곡계 2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상근 선생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향신회의 2016년 정기작곡발표회.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향신회는 지금까지 52차례 발표회를 통해 350여 편의 창작곡을 발표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음악작곡가협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로그램]
임지훈/Kontrast for Flute Solo
황선영/Same or Different for Violin & Violoncello
정해욱/전미개오 I
이규봉/플루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하공예V...' (2016)
김정권/피아노변주곡 바단조
김범기/Paradise city for Flute, Clarinet & Bassoon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3

우리음악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93년 창단 후 우리음악이 올바르게 나아갈 바를 연구하고 지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음악관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제1회 민음곡 함께 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여름방학 교과서음악회, 학교 음악정상화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전통음악의 멋을 함께 공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온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국악합주를 비롯해 피리제주, 거문고제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4: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초대(좌석권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
문 의 |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010-2562-6561

부산의 대표적인 리코더 연주단체인 부산리코더앙상블이 결성한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그동안 연습을 통해 쌓아온 단원 개개인의 리코더 연주기량과 앙상블 능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기초반, 향상반이 들려주는 잉글랜드 민요 '그린 슬리브스', 필립 소사 '자유의 종' 행진곡, 헨델 '세바 왕의 도착', 베토벤 '음악시계를 위한 미뉴엣'에 이어 합주단 최고 레벨인 연주반 단원들이 클랜 새너 '폴리아 변주곡'과 비발디 '협주곡 작품 3 제10번 나단조'를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리코더 오케스트라로 타악기, 첼로,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따뜻한 나눔콘서트 장일범과 함께하는 유럽 음악 여행

일 시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공연 당일 16:00부터 매표소에서 좌석권 배부)
문 의 | 해운대구청 749-4065



지난 2000년 음악을 사랑하는 해운대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 재능나눔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단장 겸 지휘자 정우영이 지휘하고 해박한 지식과 명쾌하고 재미있는 진행과 해설로 이름난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진행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아대학교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이명진,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이혜준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지휘/정우영(단장 겸 지휘자)
- 진행/장일범
- 첼로/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 바이올린/이혜준(양문고등학교 1학년)

제5회 바리톤 고평수 with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을음악회

일 시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6: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고평수 010-4434-6605



부산대학교 경향실버아카데미 가곡교실,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가곡교실, 금정점 e-mart 문화센터 가곡교실, 해운대 시립도서관 가곡교실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바리톤 고평수와 그의 가곡교실 문하생들이 마련하는 가을음악회.

바리톤 고평수는 이태리 빼아첸차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해운대 노노실버합창단, 노이여성합창단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의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각 가곡교실 수강생들이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신정순(동덕대학교 콘서바토리 외래교수), 소프라노 김민주(동아대학교 4학년 재학), 테너 김추리(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바리톤(양영찬, 왕태호, 홍진웅. 부산예고 2학년 재학)

음악대륙 가이아 '오-쇼'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A석(3층) 1만원
문 의 | 음악대륙 가이아 010-8545-4816



대중에게 생소한 '국악'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퓨전 국악실내악단 '음악대륙 가이아'의 무대.

지난 2009년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음악대륙 가이아'는 예전의 대륙이 하나였듯 세상 모든 음악이 하나이고, 그 하나에서 다양한 음악이 파생되었다는 생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악의 다양하고 새로운 면모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는 우리 악기와 서양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고품격 국악 콘서트로, 가이아만의 행복 에너지 가득 넘치는 곡들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 연주/손한별(대금, 소금), 신정현(피리, 태평소, 가타), 김원지(해금), 문포근(가야금), 김아름(소리), 김민규(타악)

창립30주년 제22회 어울림국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어울림국악연구회 010-7300-2688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번 무대에서는 모든 악기가 편성된, 그리고 의상과 격식을 갖춘 격조있는 정악연주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정악연주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현악합주 '유초신지곡' 중 영불도드리, 타령, 생황, 단소병주 '중광지곡' 중 세령산, 현악합주 '수요남곡', 태평소와 사물놀이(삼도가락), 관악합주 '표정만방지곡' 중 상령산, 단소제주 '가을밤, 귀뚜라미 노래산치, 오빠생각, 등대지기'

- 우정출연/일본 도쿠시마 방악집단
- 특별출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오페라 '손양원'

일 시 | 11월 7일(월)~8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C석 2만원
(단체 20명 이상 20% 할인)

문의 | 가보돌 선교 오페라단 010-2567-3994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인의 아픔을 함께하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산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 '손양원'.

오페라 '손양원'은 동요 '송이송이 눈꽃송이', '핑핑 눈이 옵니다', '산골짜기의 다람쥐' 등 수많은 동요와 찬송가 등 5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 박재훈 선생이 8년간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오페라로, 지난 2013년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창작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작곡/박재훈
- 대본/김희보
- 예술총감독, 지휘/이기균
- 단장/서명보
- 연출/안호원
- 합창/박용선
- 오케스트라/가보돌 선교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 합창/가보돌 선교 오페라단 합창단

김은진 비올라 리사이틀

Paganini e Italia

일 시 | 11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주자이자 비르투오조 켈릿, (사)더 솔리스트 멤버, 대구 울림 소사이어티 수석, 부산챔버소사이어티, 창원솔리스트 수석으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김은진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문연주

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은진은 솔리스트로서 뿐 아니라 실내악 연주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김은진은 동의대학교,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강사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마르첼로/비올라 소나타 마단조
- 파가니니/비올라를 위한 대 소나타
- 프로코피예프/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등
- 피아노/이조토브 예브게니(신라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의 밤 II

일 시 |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000원(만 7세 이상 관람가)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II'.

마에스트로 오종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무곡의 세계'라는 주제로 작곡가 유중호의 위촉곡 '우아한 찬가'를 비롯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종근
- 협연/황지원(바이올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 작곡/유중호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Mozart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11월 무대.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가 리더로 있는 비르투오조 앙상블의 무대로, 프

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Superieur Excellence, Perfectionnement, 실내악과정, 파리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계명선의 협연으로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정희영의 창작곡 Ouverture zu 'Die Nacht von Mozart'를 시작으로 늦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모차르트 곡으로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34 · 35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 바이올린 이미원, 소프라노 이지은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그동안 역량 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해온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11월 무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와 동아대학교 음악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음악위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미원과 동의대학교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보나피데 연주팀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지은이 늦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곡을 들려준다.

- 진행/고민지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보존회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대성류아쟁산조보존회
010-5438-7600



아쟁산조의 창시자인 한일섭 선생의 1대 제자로, 지난 2009년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아쟁의 대가 박대성 선생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된 박대성류 아쟁산조보존회의 5번째 정

기연주회.
[프로그램]
박대성류 아쟁 긴산조
태평무(강선영류)
소아쟁과 피아노 앙상블 '와전(訖傳)'(강봉천 곡)
아쟁합주 '민요'
박대성류 아쟁 짧은 산조
장구합주 다드리

김문영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문영 010-4033-8708



섬세한 표현과 짜임새 있는 구성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문영 귀국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Master of Music) 및 최고 연주자과정(Meisterklassenexamen)을 졸업한 김문영은 제3회 서울 피아니스트 전국음악콩쿠르, 제7회 구리시 교향악단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연주기량을 인정받았다.

졸업 후에도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귀국한 김문영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레퍼토리를 치열한 연구를 통해 청중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 110
라흐마니노프/피아노 소나타 제1번 라단조 작품 28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김동규와 송소희의 어느 멋진 날에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경로우대자, 청소년, 임산부, 장애우, 다자녀가정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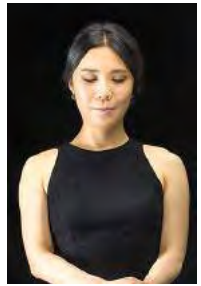


동래문화회관 개관 17주년을 맞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 국악소녀 송소희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바리톤 김동규는 중후하고 힘 있는 음색과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민요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면서 소녀 명창으로 유명한 송소희는 이제는 어엿한 국악인으로 성장, 특유의 고운 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16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성악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김정화 피아노 독주회 '소녀의 기억'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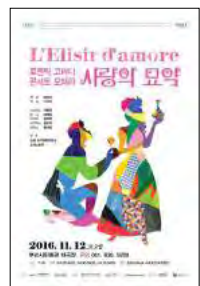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보스턴음악원 연주학 석사 및 전문연주자 디플로마과정을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음악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피아니스트 김정화 독주회. KNN 파워FM '더 클래식 정회정입니다'에서 공연 리부 해설자로도 활동

한 바 있는 김정화는 Royal Academy School for Music 예술감독 및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31 제3번 '사랑'
슈만/나비 작품 2
드뷔시/영상 1집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도니제티의 명작으로,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과 우아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국내 최고의 오페라 전문 연주단체인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코레아나 클라시카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양진모, tvN '오페라 스타 시즌1'에서 연출을 맡았던 오페라 연출가 이익주가 만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이번 무대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되며, 네모리노 역의 테너 이재욱과 아디나 역의 소프라노 서혜란을 비롯해 돌카미라 역의 베이스 함석현, 벨코레 역의 테너 김진주, 자네타 역의 소프라노 김윤진 등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출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 지휘/양진모 • 연출, 해설/이익주
• 연주/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010-2270-1195



지난 1998년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부설 청소년리코더 합주단으로 발족한 후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2000년 12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

동안 16차례 정기연주회와 을숙도문화회관 토요일지점프, 리코더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대만국제교류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 지도교사/박성래(가평초등), 서민숙(금강초등), 이애령(모산초등), 이재숙(웅당초등)
• 주니어반 지도/이창욱(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상임지휘자)
• 특별출연/우쿨렐레 다락방, 이가희(피아노)
• 사회/이재숙

2016 조민형 피아노 독주회
생각하는 클래식 II
이데어를 꿈꾸다 '로망'

일 시 |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조민형 010-9412-3337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A.),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부산 초량교회 아가페찬양대 반주자, 피아노음악연구회, 한국르네상스학술연구회, 한국리스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조민형 독주회.

이번 무대는 '생각하는 클래식' 두 번째 무대로, '로망'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꿈과 이상이 아닌, 이성과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정신, 자유로운 창조력을 중시했던 낭만시대의 진정한 '로망'의 의미를 찾아 떠난다.

프로그램
리벨/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엣', '토카타'
드뷔시/달빛
드뷔시/가뽀의 섬 등 수곡

제8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깊어가는 가을밤

일 시 |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868-2808



부산의 촉망받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8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와 협연무대, 아시아오페라단 초청 싱가폴, 캄보디아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모로제 성악연구회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늦기를 서정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이현정, 이지은, 구민영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양승엽, 문한솔
- 바리톤/윤오건
- 피아노/이소영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34회 정기연주회
THE BEETHOVEN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519-5664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으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및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경상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조현선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교향곡의 교과서로 불리는 베토벤 교향곡 중 서정적이면서도 위트와 유머가 가득한 '교향곡 제4번'과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제1회 대한민국 창작오페라페스티벌 선정작으로, 우리나라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호평받은 부산 출신의 작곡가 백현주의 오페라 '선비' 모음곡을 들려준다.

Raon Piano Society 제1회 정기연주회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Raon Piano Society 010-9496-2687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외래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출강,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회원,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회원, 은향교회 호산나찬양대 반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민경의 제자들로 구성된 Raon Piano Society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태리, 노르웨이를 비롯 국내에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최민경은 이날 무대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피아노가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연주를 통해 음악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로 그려낸다.

- 연주/최민경, 손윤주, 안성미, 김인애

제3회 아모스앙상블 정기연주회
가을...음악으로 물들다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아모스앙상블 010-4561-4561

성경에 등장하는 의로운 농부 '아모스'처럼 음악이라는 열매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지난 2008년 발족한 아모스앙상블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해 정식 창단연주회를 가진 아모스앙상블은 그동안 장애인체, 미혼모시설, 보육원, 병원, 요양원, 복지관, 다문화가정, 군부대, 노인을 위한 효음악회 등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바하/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발페/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타라의 테마
영화 '썬더러 리스트' OST
에디트 피아프/사랑의 찬가 등 수곡

- 총기획/이해리
- 음악감독/안은탁
- 협연/윤민우(더블베이스)

토리오카리나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토리오카리나앙상블 010-4858-0216

수년간의 연주활동과 다양한 경험으로 실력이 쌓이온 연주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자 지난 2015년 창단한 토리오카리나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작지만 단단하고 아무지다'라는 순우리말 '토리'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토리오카리나앙상블은 센텀시티 지하철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토리오카리나앙상블 공연을 시작으로 토리오카리나앙상블 창단연주회, 설날맞이 노인전문제3병원 봉사연주회, 제26회 새우리음악회, 송상현광장 시민을 위한 오카리나 산책, 부산문화재단 기약동아리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오카리나 선율의 매력을 선사해오고 있다.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초청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지난 1989년 풍부한 음악 문화를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국내 음악과 문화를 해외로 소개하고자 창단된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초청 청소년 협주곡의 밤.

완벽에 가까운 앙상블과 더불어 재기 넘치는 퍼포먼스까지 수많은 관객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며 호평을 받아온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은 국내에서의 왕성한 활동은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오페라, 발레 등 공연 예술과 시즈마다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 음반 녹음, 페스티벌과 콩쿠르 등에서 그 역량을 과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지현, 김예린, 박제현 등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이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솔블리 트리오(Sombli Trio) 렉처콘서트 III 막스 브루흐

일 시 |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프랑스 무동 음악원 전 문연주자과정, 뷔와씨 음악원 Superieur 과정,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최고점으로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Mozarteum Internationale Sommerakademie를 수료한 피아니스트 이해경,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과정을,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한 비올리스트 김기민으로 구성된 솔블리 트리오가 마련하는 렉처콘서트 세 번째 무대.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 편으로, 막스 브루흐가 클라리네티스트였던 아들 펠릭스 브루흐를 위해 작곡한 '8 Pieces 작품 83' 전곡 연주와 함께 멜로디 중심적이라 쉽게 이해되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브루흐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2016 풍류전통예술원 정기공연 樂樂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풍류전통예술원 010-2781-3888

지난 1999년 3월 창단된 후 동해안별신굿의 무속 음악과 경상도 지역의 토속적인 풍물의 원형과 맛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풍류전통예술원의 2016년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을 시작하기 전 판을 깨끗이 하는 의식행위인 '부정굿'을 시작으로 기존의 사물놀이 가락에 동해안 별신굿의 팽거리 타법과 가락을 덧입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 락락(樂樂) 등 동해안 별신굿과 경상도 지역의 풍물가락과 몸짓을 토대로 한 전통 타악무대를 선사한다.

•출연/박종환, 정동훈, 이정현, 권우유, 최선희, 전상오, 정의효,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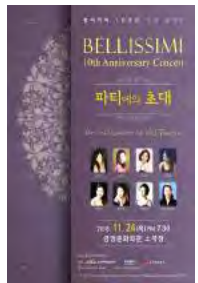
벨리씨미 10주년 기념 음악회 파티에의 초대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벨리씨미 010-8277-4746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성 성악인의 모임으로 매년 따뜻한 테마와 주제로 무대를 열어온 벨리씨미 성악연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이태리어로 '멋있는', '아름다운'을 뜻하는 벨리씨미는 이번 무대에서 한국 가곡 메들리와 스트라우스, 푸차니, 로시니, 칠레아, 헨델, 구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로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 소프라노/이은미, 장은영, 정혜리, 이나연, 방미애
- 메조 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금찬이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21회 프롬나드 콘서트 '무곡의 세계'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11월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데 제13번 작품525 '아이네 클리크 네 나흐트 무지크'

드보르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22

몬티/차르다시 등 수곡

- 예술감독/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회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 좌석 무료(초대)

문의 | 고통수 010-4434-6605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와 이태리 베아첸짜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리리코 스피노 소프라노 신정순의 다섯 번째 독창회.

Concerto 전문 성악가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늦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드라마틱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페르골레시/만일 당신을 사랑하여

슈베르트/물위의 노래

아원주/베를레노래

김동진/신아리랑

칠레아/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리오' 중 '나는 천한 중'

드보르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의 노래' 등

•특별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3인3색 트리오의 밤

일 시 |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과 전주시립 교향악단 첼로 수석 김근혜, 그리고 올해 창원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피아니스트 김미현이 연주하는 3인 3색 트리오의 밤.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슈페리오 과정,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장재혁은 프랑스 시메 인터네셔널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한양대학교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 석사, 하노버 국립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근혜는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음대 석사, 오리건대학 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미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KCO String Quartet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세 사람의 개성이 앙상블로 잘 어우러지는 무대로 베토벤, 브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고신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고신언론사 주화 고신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초청 메시아 대연주회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고신대학교 음악과 990-2283



고신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마련하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대연주회. 매년 부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합창연주를 통해 음악발전에 기여해 온 고신대학교 음악과는 그동안 헨델의 메시아, 바하의 마태수난곡, 미사, 멘델스존의 엘리야, 바움, 시편95편, 하이든의 천지창조, 사계 등을 무대에 올려왔다.

- 지휘/안민
- 독창자/소프라노 박근혜, 김나영, 엘토 이선미, 이미경, 테너 김경여, 조윤환, 베이스 양재원, 최판수
- 챔발로/김미나
- 오르간/이혜영, 윤호정
- 합창/고신대학교 합창단, 동문합창단
- 협연/프라임오케스트라,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김현경 세번째 독주회 부산 거문고 회상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현경 010-4202-3003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수료)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부산 거문고학회, 창작국악단 젊은풍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김현경 독주회.

제23회 부산전국국악대전 차상, 제5회 전국국악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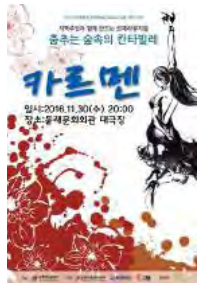
있는 김현경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독주회를 가졌으며 20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협연무대에 선 바 있다.

부산 동래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거문고 연주자 현당 김대현의 풍류를 최초로 재조명하는 김현경은 이번 무대에서 명맥이 끊겨 소실된 부분은 동래줄풍류로 전승되는 강태홍의 가야금풍류와 이말량 전 영재풍류 양금가락을 참고해 재구성함으로써 명맥이 끊어진 부산의 풍류방 문화를 온전히 재현한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오페라 뮤지컬 '카르멘'

일 시 |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지역주민, 대학생, 문화취약계층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춤추는 숲속의 칸타빌레'에 참가했던 지역민들이 직접 제작한 오페라 뮤지컬 '카르멘'.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문화회관을 즐거운 놀이터로 생각하게 하여 함께하는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연극과 무용, 오페라 뮤지컬 교육을 통한 음악극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민들이 실제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연습을 가져왔다.

제46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천원(만 7세 이상 관람가)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마련해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16년을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2016 송년음악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양경아,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성혜, 국립오페라단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전병호의 협연으로, 저물어가는 2016년을 아쉬워하고 새로운 2017년을 맞는 희망을 다채로운 연주곡에 담아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악장), 김성혜(소프라노), 전병호(테너)



Play 연극

연극 '셜록홀مز: 진실게임'

일 시 | 9월 22일(목)-2017년 1월 1일(일) 오후 5:00, 8: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 소설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탐정 '셜록 홀مز'의 모험담을 그린 연극.

셜록홀مز에게 수수께끼의 암호의뢰서가 도착하면서 사건 종료 50시간 남은 게임이 시작된다.

사건을 추리할수록 점점 꼬여만 가는 단서들과 용의자들의 관계 속에서 셜록홀مز는 인간의 진심과 진실에 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1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영화, 도서, 드라마,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셜록홀مز: 진실게임'은 원작 본연의 추리와 스릴, 서스펜스 속에서도 윤택있는 연출로 글과 영상매체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제2회 NASO페스티벌

일 시 | 9월 1일(목)~11월 27일(일) **나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3작품 3만 9천원, 5작품 6만원, 11개 전공연 패키지 10만원)
문의 | NASO페스티벌 사무국
 010-9237-9390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공간과 미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산연극계의 새로운 네트워크 페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NASO페스티벌.

극단 배우창고를 비롯해 13개 극단이 참가하는 이번 제2회 NASO페스티벌은 청년연극인, 신진연극인들의 치열한 데뷔전 무대로, 참가공연 외에도 버스킹, OST콘서트, 워크숍과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차별화된 연극축제를 선사한다.

극단 H.O.W & 그리고 그러다 '꽃여(맥아)'
 11월 3일(목)~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오나라의 급습으로 인해 전투에 패한 관우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변두리의 작은 성, 맥성으로 피신한다. 이를 놓치지 않고 오나라는 그들에게 수많은 작전을 펼쳐대고, 관우 장군과 함께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은 각자 스스로의 선택을 앞둔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 작/권상우, 손민수 • 연출/권상우
극단 누리에 '여자이발사'
 11월 10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1945년 말, 김태수는 에이코와 자신의 아이를 친구 이진식에게 맡기고 사라진다. 에이코는 김태수의 누이인 김인자의 가게에서 김태수를 만나게 되지만 아들 정호를 빼앗기고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말만 듣게 되는데...
 • 작/전성태 • 연출/강성우

극단 팻브릿지&B급로타리 '원스어폰타임 인 조선'
 11월 17일(목)~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7:00
 1930년대 경성의 한 무기공장 김안수 집안의 장남 김장구는 아버지의 친일행적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날 만주에서 내려온 한 남자에게 공장의 무기를 빼앗고 혁명을 주도하자는 제안을 받는데...
 • 작, 연출/김경민

극단 더블스테이지 '나비'
 11월 24일(목)~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청나라의 잔인한 만행이 조선 땅을 헤집고 지나간 1638년, '오랑캐에게 정절을 더럽힌 환향녀와의 이혼을 허가해 달라'는 상소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고심하던 인조는 궁여지책으로 묘안을 짜내는데...
 • 작/김지숙 • 연출/김동민

생계형 코믹 서스펜스 '오백에 삼십'

일 시 | 9월 29일(목)~11월 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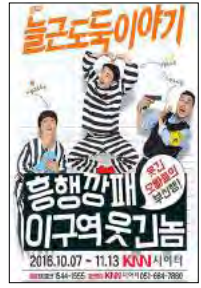
연극판 '빨래'라 불리며 대학로를 평정한 연극 '오백에 삼십'. 월세를 내지 못해 삶에 허덕이는 '허덕'과 역척스럽지만 속은 누구보다 어린 허덕의 부인 '효영', 알뜰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만년 사시준비생 '배변'은 서로를 의지한다.

하지만 슈퍼 갑질을 일삼는 빌라 주인아줌마의 느닷없는 사망 소식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범인은 누구인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극 중 인물들이 가진 가난함은 더욱 선명해진다.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만 원인 원룸텔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연극 '오백에삼십'은 돈도 없고 뺨도 없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감동과 웃음으로 풀어낸다.
 • 작, 연출/박아정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일 시 | 10월 7일(금)~11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KNN시어터 664-78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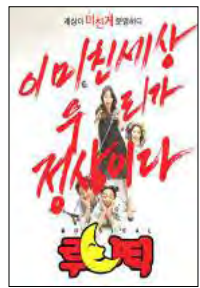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돌직구로 지난 26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국가대표 시사코미디극 '늘근도둑이야기'.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더늘근 도둑'과 '덜늘근 도둑'이 인생 마지막 한탕을 위해 '높으신 그분'의 미술관에 침입해 벌어지는 에피소드 속에서 이들의 있지도 없는 범행 배후와 사상적 배경을 밝혀내려는 수사관과의 한바탕 소통을 그린 '늘근도둑이야기'는 허룽방 이야기 속에서 현 시대의 정치, 경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대사와 연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촘촘살인 대사들과 신스틸러 배우들의 관객을 사로잡는 화려한 입담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뮤지컬 '루나틱'

일 시 | 10월 27일(목)~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4년 소극장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며 창작뮤지컬의 역사를 써내려간 뮤지컬 '루나틱'. 노래와 춤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감성의 소유자인 굿닥터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각자의 아픈 사연을 가진 환자들의 치유과정인 아름다운 선율 속에 유쾌하게 펼쳐지는 '루나틱'은 특히 정신과 권장 심리치료 중 하나인 '역할극'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두운 상황에서부터 극중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서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그동안 홍지민, 배성우, 진이한 등 스타 연기자들을 배출하고 소찬휘, 김숙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했던 '루나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으면서 120만 관객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2016년 정기공연 필경사 바틀비

일 시 | 11월 3일(목)~4일(금)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4: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사랑티켓 참가자,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 극단 바문사 010-3412-9873, 010-8674-7165



소설 '모비딕'으로 유명한 작가 허먼 멜빌의 동명의 소설을 무대로 옮긴 연극 '필경사 바틀비' 부산 초연무대. 19세기 말, 뉴욕의 월 스트리트 증권가에서 도덕적이라 거부하는 변호사 '나'가 만난 필경사 바틀비의 이야기로, 그는 자기가 고용한 필경사 바틀비로부터 끊임없이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겠습니다(I prefer not to)'라는 말을 듣는다. '나'는 그에게 인내와 양보,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려 하나 바틀비는 언제나 그 말을 반복할 뿐이고, 결국 '나'는 그를 버리고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필경사 바틀비'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일 시 | 11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문의 | KNN 950-6500



지난 2005년 한국 초연 이후 한국 공연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온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부산공연.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중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를 통해 빅토르 위고가 지향하는 인도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그린 작품이다.

3년 만에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으로 만나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는 물론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 온 세트로 2013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다.

- 출연/홍광호, 케이윌, 문종원, 리아, 전나영, 김다현, 마이클리, 서범석, 최민철 외

연극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 11월 4일(금)~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 611-8518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족애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가족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가슴 따뜻한 가족드라마 '봄이 오는 소리'.

홍길동이 된 착각에 빠져 사는 치매노인 길동, 길동의 통장에는 1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길동은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고 길동의 조강지처 순애와 아들 중욱, 그리고 첩의 자식인 지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마당극의 풍자와 해학을 차용한 '봄이 오는 소리'는 아만적이면서도 끔찍한 사건사고가 난무하는 비현실적인 세상 속에서도 인간을 변화시킬 힘은 여전히 사람과 가족임을 이야기한다.

- 작, 연출/전상배
- 출연/서원오, 황미애, 이영준, 김현경, 김현오

2016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선정작인

장르융복합 프로젝트 공연

예술집단 C '토끼h의 시간'

일 시 | 11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백산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예술집단 C 010-8873-0610



2016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선정작인 장르 융복합 프로젝트 공연 '토끼h의 시간'.

일러스트 작가 조용현의 일러스트 '토끼h의 시간' 시리즈를 컨셉디자인으로, 스토리를 새롭게 구성, 창작한 '토끼h의 시간'은 전시, 음악, 조명, 영상, 춤, 무대미술, 연극 등 여러 예술 장르가 융합된 무대로, 동화적이고 판타지적인 감성으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성이 무시된 사회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토끼들을 등장시켜 차이와 차별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각자의 시간을 찾아가는 토끼들의 여정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그려낸다.

- 연출/황지선
- 캐릭터디자인/조용현
- 출연/김수현, 전성호, 허종원, 이해영, 강동환 외

극단 누리에 '여자이발사'

일 시 | 11월 18일(금)~26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7: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예술회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극단 누리에 621-3573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누리에의 창작극 '여자이발사'.

전성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여자이발사'는 일제 말기부터 미 군정기, 한국전쟁, 경제 발전기라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재한일본인으로서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주인공 에이코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해방 후 1945년 말, 일본에서 귀국선을 타고 조선인 남자 김태수와 함께 현해탄을 건넌 일본인 여자 에이코는 김태수의 아이를 낳으나 김태수는 '찾지 말라'는 쪽지와 함께 에이코와 아이를 남기고 떠난다. 아이와 함께 김태수를 기다리며 사누이의 일을 돕던 에이코는 김태수를 만나게 되지만 아들 정호를 빼앗기고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듣게 되는데...

- 각색/김경미, 강성우
- 연출/강성우
- 출연/이지혜, 이태성, 전지연, 우지현, 고현우, 양경문, 김채윤 외

뮤지컬 '맘마미아'

일 시 | 11월 18일(금)~2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 예술기획성우 1599-1980



지난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1,400여 회 공연, 170만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맘마미아!'.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음악에 모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남

녀간의 사랑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2년 공연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맘마미아!'는 지난해 오디션을 통해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었던 원년 멤버와 더불어 차세대 주인공이 될 실력파 배우들이 선발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감동으로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 출연/최정원, 신영숙, 전수경, 김영주, 이경미, 홍지민, 박지연, 김금나, 남경주, 성기윤 외

명품음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일 시 | 11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지난 1998년 초연 당시 전회 매진기록을 세우며 24회 공연에 10만 명이 관람하면서 국내 공연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치열하게 헤쳐 살아 온 한 남자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불효자는 읍니다'는 이번 무대에서 기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해석과 모던하고 세련된 연출로 정년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도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어머니와 뒤늦게 화한 눈물을 흘리는 아들 역에 연기자 이종원과 안재모가 낙점되어 새롭게 호흡을 맞추며 여기에 지난 2015년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 연기했던 베테랑 배우 김영욱과 국민 엄마 고두심씨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 역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016년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선정사업

극단 세계 정기공연 **챙-어느 교향악단의 심벌즈 연주자 이야기**

일 시 | 11월 24일(목)-12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김만중 010-7110-8518



올해 7월 한국 최고의 극작가 이강백과 부산 연극계의 전설 허영길과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던 모노드라마 버전의 '챙'을 새롭게 2인극으로 구성한 '챙-어느 교향악단의 심벌즈 연주자 이야기'. 오케스트라 무대의 한 구석에 가려져 있다가 절정의 순간에 '챙'하며 심벌즈를 울려왔던 한 남자의 인생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으로 정년퇴임한 박찬영과 모노드라마 '챙'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우명희가 호흡을 맞춰 힘과 섬세함이 결합된 원숙한 연극의 참맛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작/이강백
- 연출/허영길

나다문화예술단 2016년 정기공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민주공원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김만중 010-7110-8518



부산에서 활동 중인 문화, 예술가들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공연 찾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나다문화예술단의 2016년 정기공연. 매년 우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화두 중 하나를 정해 무대에 올리고 있는 나다문화예술단은 2015년 '평화'에 이어 2016년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을 겪어야 했던 많은 젊은이들과 소녀들에서부터 최근 세월호 희생자까지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낙담의 '슬픈 고백'을 담은 창작극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무대에 올린다.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와 시낭송, 무용,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총체극으로, 관객들에게 아픔과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은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 구성, 작곡, 연출/김만중

창작뮤지컬 **'해운대 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일 시 | 11월 30일(수)-12월 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구가 지난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에 이어 1년여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한 월메이드 창작뮤지컬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신라 말기 진성여왕 시대, 국내외적으로 어지러운 국정 가운데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치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연출가 박정우가 극본과 연출을 맡고 뮤지컬 배우 한규정(최치원 역), 김효영(위충 역), 김경원(진성여왕 역) 등이 출연하는 등 연출, 음악은 물론 주연과 조연급 배우, 스태프까지 부산 사람들로 구성, 또다른 'Well Made in Busan' 작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 총제작/김성모
- 작, 연출/박정우
- 작곡/이진실, 박정우
- 지휘/손영진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해운대뮤지컬코리아

뮤지컬 **'그날들'**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4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 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1800-2575



그가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故 김광석**의 노래들로 엮은 창작뮤지컬 '그날들' 부산공연. 지난 2013년 초연 당시 그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그 해 열렸던 제7회 더 뮤지컬어워즈, 제19회 한국 뮤지컬 대상, 제7회 차범석화곡상, 제2회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2014 대구 국제 페스티벌 댄스 어워즈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던 '그날들'은 1992년과 2012년,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대통령의 딸과 수행 경호원의 사리진 행방을 뒤쫓는 경호부장 정학 앞에 20년 전 사라졌던 경호원 동기인 무영과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짜임새 있는 전개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Dance 무용

김정원의 춤 **아홉 번째 이야기**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 의 | 춤소리예술단 636-8071



경성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춤소리 예술단 대표, 한얼정악창무극단 예술감독, 극단 에저도 안무감독, 춤패배김세 지도위원,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이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춤꾼 김정원의 춤 아홉 번째 이야기.

- 예술총감독 및 연출/김정원
- 음악감독/김청만
- 해설/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김청만, 하용부, 김태형, 정선희, 신호수, 진주검무보존회 부산지회

2016년 여름무용단 정기공연 **다양다색**

일 시 |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지영 010-3429-7588

부산무용협회 회장으로 있는 춤꾼 서지영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여름무용단의 2016년 정기공연. 10여 년 이상 숙련과정을 거친 아마추어 춤꾼들이 우리춤을 향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모인 여름무용단은 지난 200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일본과의 교류무대를 통해 민간 문화수교에도 이바지해오고 있다.

- 프로그램**
- 길뒹춤, 태평무, 한량무, 살풀이춤, 산조춤, 장고춤과 실장고춤, 허튼신명춤, 대강놀이
 - 예술감독/서지영
 - 사회/박화진



Movie 영화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발레 '심청'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전화예약 필수)
문의 | 금정문화회관 619-5661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공연 영상을 즐기고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발레 '심청'.

지난 1984년 창단된 한국 최초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아자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창작발레 '심청'은 1986년 국립극장에서 초연한 이후 30년 동안 전 세계 15개국 투어를 통해 각종 찬사를 받으며 '한국 발레 역사'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Concerts 콘서트

뮤지컬 갈라쇼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황태자 루돌프', '엘리자베스', '레미제라블' 등 유명 뮤지컬 넘버로 꾸며지는 뮤지컬 갈라쇼.

• 출연/선승일, 김정호, 정호준, 정종욱, 이상호, 김현기, 이태경, 박슬기, 문지영, 신새봄, 박다솜, 김경원, 최예나

**7080 낭만콘서트 '가을소풍'
-남궁옥분, 소리새, 추가열**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Event 행사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일 시 | 9월 6일(화)-12월 6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 20만원(13주, 해설집 제공)
문의 | 최정욱 010-3853-6634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2강 모차르트의 삶과 예술

일 시 | 11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7강 플랑드르의 화가 루벤스**

일 시 |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11월 14일(월), 17일(목), 21일(월), 24일(목), 28일(목)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21일, 28일 강좌는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 14일(월) 음악평론가 곽근수의 클래식투어(4)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 그리고 영화 '카핑 베토벤'
- 17일(목) 나를 찾아 떠나는 미술기행(2) 여성 미술가의 자화상(강사/최석태·미술평론가)
- 21일(월) 영화 '진저 앤 로사', '피쉬 탱크', '지미스홀' 분석으로 보는 칸로치의 눈·바비 라이언(Robbie Ryan)의 촬영 세계(강사/정성욱·촬영감독)
- 24일(목) 소와 만궤-로마(2) 로마의 골목(강사/최원만·바리스타)
- 28일(월) 책: 폴록과 미국형 회화·추상표현주의의 성립과정 그리고 영화 '폴록(Pollock)'(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달맞이길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시마당 제168회 시낭송회

일 시 |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새홍재병원 대강당
문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Display 전시

이정록 사진전 'NABI II'

일 시 | 10월 26일(수)-11월 25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한·일 작가교류전

일 시 | 11월 1일(화)-11월 7일(월)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도예가 이능호 작품전

일 시 | 11월 1일(화)-11월 29일(화)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김청기 '태권V 영동산수화'展

일 시 | 11월 2일(수)-11월 29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제3회 부산민화제 '삶을 그리다'

일 시 | 11월 10일(목)-11월 16일(수)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수채화그룹 '물' 초대전

일 시 | 11월 19일(토)-11월 30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제1회 향목회 회원전

일 시 | 11월 26일(토)-12월 1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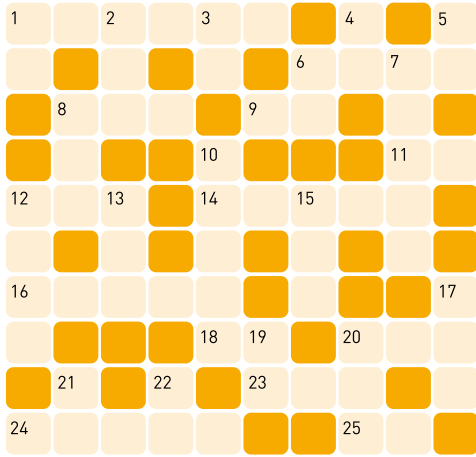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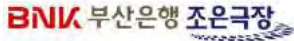
- 오페라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와 함께 베르디의 빅3로 꼽히는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박력 있으며 열정 넘치는 작품으로 꼽힌다. '2016 부산오페라 Week' 행사로 솔오페라단이 12월 3일과 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이태리 베네치아 리페니체 국립극장, 파르마 왕립극장 공동제작으로 선보인다.
-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작품으로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소설. '토끼잔이'라고도 하며 판소리 '수궁가'의 원 작품이고, 개화기 소설 '토의간이' 이 소설로부터 창작되었다.
- 판소리에서 소리와 소리 사이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 하듯 줄거리를 설명하는 부분.
- 시인 서정주의 호칭.
- 스페인계의 화폐 단위, 현재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 등 몇몇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 체코의 수도.
- 1925년 일본인의 서커스단 직원이었던 동촌 박동수에 의해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서커스단. 지난 2009년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서커스단을 살리자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다시 기사화생하게 되어 현재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자리를 잡고 정기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 영화 '러브레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일본의 영화감독, 최근 '일본왕국의 신부'라는 영화로 12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찾았다.
-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자연 발생하여 가기에 노장사상, 유교, 불교 그리고 통속적인 여러 신앙 요소들을 받아들여 형성된 종교.
- 20세기 중반을 이끈 가장 유명한 지휘자 중 한 명으로, 1955년부터 지난 35년간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었다.
- 조선 중기의 시인, 기녀. 서경덕, 박연목포와 함께 '송도 3절'로도 불렸으며, 대표작으로 '만월대 회고시', '박연목포시' 등이 있다.
- 1845년에서 1862년에 걸쳐 완성된 대장편으로, 시대의 풍속이 잘 드러난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 당첨번호를 선택, 구매하는 복권.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금 마련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했다.

세로열쇠

-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왔을 때 태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자연현상.
- 도나체티, 벨리니와 더불어 19세기 전반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벨칸토 낭만주의의 빛나는 예술성을 꽃피운 작곡가. 다수의 오페리를 비롯해 칸타타, 피아노곡, 관현악곡, 실내악곡 등 다양한 작품들을 작곡했으며 대표작으로 '세비야의 이발사', '발헬름 텔', '세미라미데' 등이 있다.
- 밥이나 국수 따위에 따뜻한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며 대응.
- 한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남네기 사촌인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가혹한 현실에서 꿈을 찾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준의 감독의 2016년 영화.
- 예전에 쓰던 작품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조선시대 양반이나 중인 계층의 주택에서 안채나 사랑채의 곁이나 뒤에 따로 지은 집. 사랑채의 연장으로 가장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식한 재채나 노모의 거처, 지역 사회의 모임 장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 헝가리의 수도.
- 지속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악인들의 전쟁을 그린 김성수 감독,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주연의 범죄액션 영화.
-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에 편찬, 간행하고 1864년에 제정한 22첩의 병풍식(또는 절첩식) 전국 지도첩. 보물 제850호.
-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해 정신 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 지난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화산섬. 주도는 호놀룰루.
- 섬진강을 중심으로 서편 지역인 광주, 보성, 나주, 고창 등 전라도의 서쪽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 소리체. 슬픈 계면조의 노래가 대부분이며, 정교한 시김새(꾸밈음)를 사용한다.
- 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연방국. 1989년 6월 버마(Burma)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수도는 앙골이었으나 신행정수도 네피도가 건설되었다.
- 로마교구의 교구장주교이자 가톨릭교회 전체의 영적 지도자이며 비탄칸 사목의 국가원수.
- 이집트의 수도.
-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등단작이자 가장 유명한 작품.
-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여신으로 주신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로 결혼과 가정의 여신으로 숭배받았다.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엘로인 플라워

지나호 정답

부 산 원 아 시 아 페 스 티 벌
 산 각 베 트
 불 국 사 리 라 파 엘 로
 꽃 피 아 노 비
 축 구 노 오 스 카
 제 돈 키 호 테 프
 오 러 브 레 터
 태 권 도 서 시 슬
 정 보 아 프 리 카
 인 생 은 아 름 다 워

엘로인플라워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정진옥(부산진구 월드컵대로)

공간소극장 박귀남(금정구 금강로)
 전상호(해운대구 대천로)
 서은미(연제구 거제천로)
 설공용(북구 화명신도시로)
 이신옥(연제구 안연로)

조은극장 김영권(사상구 냉정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백영선(연제구 법원로)
 정윤희(북구 화명신도시로)
 최철호(기장군 정관5로)

큰집식사권 김순태(서구 감천로)
 박선희(남구 수영로)
 박종태(연제구 법원북로)
 이유진(중구 대청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10월호 퍼즐 당첨자

RECORD



❖ 베토벤 교향곡 전집[한글자막]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필립 조르당(지휘)

▶ 프랑스, 베토벤의 새로운 전통을 발견하다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기량을 보다 정밀하고 균형 있게 조율해 파리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지휘자 필립 조르당.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그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바스티유에서 가진 5회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실황이 영상물로 발매됐다. 과연 조르당의 실력은 명불허전. 1번부터 9번까지 타이탄 긴장감과 치밀한 합주력, 특유의 드라마틱한 극적 흐름과 디테일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 지금까지의 다른 베토벤 교향곡 녹음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진지함을 발산한다. 화질과 음질 모두 최상급이며 특히 화면의 콘트라스트와 다양한 앵글의 편집이 대단히 예술적이다. 게다가 'Born to Conduct'라는 제목의 52분짜리 조르당 다큐멘터리가 한글자막으로 실려있어 그의 음악세계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트리뷰트 콘서트[합창곡: 한글자막]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블라디미르 주로프스키(지휘)

▶ 스베틀라노프의 탄생 85주년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콘서트

2002년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전설적인 지휘자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의 탄생 85주년을 기리기 위한 콘서트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작품 35 '종'과 바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예프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합창곡 '두 개의 시편 작품 7' 및 칸타타 '일곱 명의 악마 작품 30'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종'은 영상물로는 처음 발매되는 라흐마니노프의 걸작으로 탄생과 사랑, 공포와 죽음에 대한 대서사시가 블라디미르 주로프스키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스펙타클하게 펼쳐진다. HD급 화질로는 처음 공개되는,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차이코프스키 콘서트홀의 볼소이 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영상도 몹시 흥미로운 뿐만 아니라 탁월한 어쿠스틱이 마이크에 고스란히 포착되어 시청각적인 퀄리티를 한껏 높인다. 무엇보다도 합창곡에는 한글자막이 제공되어 작품의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또한 가능하다.



❖ 프리츠 분덜리히—원헌 방송교향악단과의 기억들

프리츠 분덜리히(테너)/원헌 방송교향악단

▶ 프리츠 분덜리히 서거 50주년 추모앨범

시대를 초월한 미성, 프리츠 분덜리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고 있다. 독일 테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성은 물론 엄청난 폭발력까지 겸비한 불세출의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서거 5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BR 클래식에서 분덜리히가 원헌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담긴 미공개 레코딩을 마련했다. 짧은 일생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1959년, 1965년 사이의 녹음에서 분덜리히는 쿠르트 아이히혼, 한스 몰트카우 등의 지휘로 독일 레퍼토리를 노래한다. 청아하고 생명력 있는 목소리는 그 자체가 시나 다름없다. 세월이 비해 깨끗하면서도 운치 있는 음향 속에서 분덜리히의 매력은 그 시절 그대로 살아 숨 쉰다.

BOOK

❖ 구원의 미술관



강상중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 240p / 1만 5천 원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재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운명의 무게는 청년 강상중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미술관에서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 '자화상'을 마주 하게 된다. 곧게 뻗은 오른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캔버스 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르네상스의 청신한 예술을 형이상학적인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그림이다. 강상중은 이 그림을 보며 마음속에 꽂 차있던 불안을 걷어내고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있었다. 독일 유학을 마친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재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2009년 NHK에서 40년째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일요미술관'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 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난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이 책은 오늘날 혼란한 세상에서 현대인은 어디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들려준다. 이 책에서 강상중의 예술론은 그의 개인적 체험과 불안하게 지속되는 현대사회의 경험이 결합되면서 폐허와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형성한다.

❖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



이대현 지음 / 다할미디어 / 260p / 1만 5천 원

소설 '레미제라블'을 읽을 것인가, 영화 '레미제라블'을 볼 것인가. 원작이 있는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이 책의 저자 이대현은 '원작도 읽고, 영화도 보기가 답이라고 말한다. 문학과 영화는 '서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도 문학과 영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다르다. 문학에는 글이 가진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이 있고, 영화에는 상징과 생생함이 있다. 원작을 읽고 영화를 본다면 언어의 상상력과 영상을 영화가 어떻게 표현하고, 변주하고, 압축했는지 비교하게 된다. 그러니 즐거움, 느낌, 생각이 두 배가 된다. 저자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 섬세한 감성, 꼼꼼한 시선으로 영화를 보며 글을 써왔다. 이 책에서는 오랜 문화부 기자생활과 영화평론의 경험으로 문학이 있는 영화의 '현장'으로 찾아간다. 원작이 있는 영화 중에는 원작의 감동을 전해주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는 영화도 있고, 새로운 감각과 서사를 매력적인 영상언어로 표현해 문학인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과 깊이를 가진 영화도 있다. 이 책은 그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27편의 작품마다 문학과 영화가 그려낸 인간과 세상에 대한 모습도 함께 들려준다.

❖ 남김의 미학



이남호 지음 / 현대문학 / 392p / 1만 6천 800원

문학비평가 이남호가 잊혀져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의 뿌리인 남김의 미학을 우리의 전통과 문학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문학, 삶,의 터전을 이루는 주거, 가구와 건축, 전통예술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이 담겨있는 문화 등을 다채롭게 다루고 있다. 시조창에서 마지막 구절을 노래하지 않고 남기는 것, 형식적 구속성이 약한 시조창,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쓰임이 완성되는 가구, 대충 그린 듯 보이는 옛 그림, 자연적인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사용하는 집과 정원, 무심과 장난기가 슬쩍 보이는 도자기 등 우리 문화에는 '일부러 비워두거나 남겨둔' 것이 많다. "젊은 시절의 나는 철저함에 집착했고 세상도 그것을 강요했다"고 말하는 저자는 남김과 관련이 있는 문화들을 접하면서 우리 전통문화 속에 남김의 정신이 의외로 풍부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를 살펴 보면서 우리의 문화는 다하는 것보다 남김에, 완전한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에 익숙했음을 일깨워준다. 완벽이나 완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며, 현 세대에게 참다운 깨달음이란 버림과 비움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지혜를 전하는 것이다.



NEWS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의 날' 개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연주회 선착순 무료관람 시행

부산문화회관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의 관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기회원의 날' 두 번째 행사가 11월 25일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은 11월 25일 '정기회원의 날'을 맞아 이날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를 예약 선착순 500석에 한해 회원 본인은 무료, 동행인 1명에 한해서는 입장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연주회가 열렸던 첫 번째 '정기회원의 날'에서도 예매 3일 만에 정해진 좌석 500석이 모두 예매되는 등 정기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부산문화회관은 올해 3월부터 골드회원 가입자에 한해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

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 2매를 제공하는 등 정기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공연티켓 할인매수에 따라 골드회원, 블루회원, 그린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관 사무국 (607-3100)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Happy Harmony'

2016년도 부산예술중학교 자유학기제 발표회

2016년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예술중학교가 진행한 예술교육 지원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2016년도 부산예술중학교 자유학기제 발표회'가 11월 18일 오후 3시 부산예술중학교 우창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전국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9월부터 예술계 특성화 중학교인 부산예술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산시립교향

악단 수석 이화영(플루트), 단원 한아름(바이올린), 최영화(비올라), 전수정(첼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김진영이 참여, 부산예술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3개월간 관현악 앙상블과 합창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수업을 마무리하며 부산예술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지도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김진영이 지휘하는 합창무대를 비롯해 플루트 트리오, 실내악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수험생을 비롯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를 마련한다.

11월 22일 부산시립합창단에 이어 29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2월 13일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청소년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로 합창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올게하소서'(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고향의 노래'(이수인 곡), '신고산타령' 등 혼성합창으로 무대의 막을 연 후 남성중창 '꽃게(정애련 곡)', '불가강의 뱃노래(러시아민요)', 여성중창 '첫사랑(김효근 곡)', '못잊어(조혜영 곡)', 혼성합창 '고등어', '우리', '새야새야', '한국민요모음' 등을 들려준다.

우리가락의 멋과 신명을 들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 이소정(이상 민요), 강민정(해금), 사물놀이팀(팽과리 이주현, 장구 최오성, 징 김인균, 북 박재현)이 출연, 국악창작곡 '고구려의 혼'(홍동기 곡)을 시작으로 '한반도 민요연곡'(백규진 편곡), 해금협주곡 '추상'(이경섭 곡), 신사랑가, 시연가, 리베르탱고, 사물놀이 협주곡 '태백의 춤'을 들려준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영화, 가요, 민요 등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춤으로 재현한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으로 청소년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11월 찾아가는 공연

11월 11일(금) 대연초등학교, 11월 17일(목) 남천중학교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11월에도 펼쳐진다.

11월에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역 학교와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꿈나무소망' 무대로, 11월 11일 오후 2시 대연초등학교에 이어 17일에는 오후 1시 남천중학교에서 '함께하는 합창이야기'가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무지개빛 하모니, 다이내믹 부산 등 합창곡과 애니메이션 메들리, 뮤지컬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을 재미있는 합창이야기와 함께 들려준다.

지난 1973년 창단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제4대 수석지휘자인 이건륜 지휘 하에

75명의 단원들이 매년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APEC정상회의 정상만찬 축하공연에 참가해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중국과 일본, 독일, 홍콩,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해외연주회에 초청을 받아 한국과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61
philharmony
필하모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윈드 드림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 **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이클로인

꽃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The Best Eyeglasses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CROWN HOTEL, ALGA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월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00(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 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2016 문화대학 무대예술의 결정체 Opera 오페라 IV

2016. 10. 26(수) ~ 11.30(수) 14: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조운범, 박대용, 오히숙, 정희정, 홍지혜, 김성경이
들려주는 가을 오페라 이야기

| 수강생 모집 |

- **접수기간** : 10월 3일(월)~
- **수강료** :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모집인원** : 60명(수강료 납부순으로 마감)
- **수강료 납부** : 카드 또는 계좌 이체(부산은행 101-2035-6492-01 예금주 문화회관 아카데미)
- **접수** : 홈페이지 및 전화
- **홈페이지**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 커뮤니티 → 아카데미
- **문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3155

| 강사 및 일정 |



1주 10월 26일 (수)
조운범
현악시중수단 퍼트랙엑스 리더
오페라 쉽게 이해하기



2주 11월 2일 (수)
박대용
동아대학교 교수, 바리톤
오페라 사랑의 이중창!



3주 11월 9일 (수)
오히숙
서울대학교 교수
오페라 속의 미학
- 21세기 현대 오페라를 중심으로 -



4주 11월 16일 (수)
정희정
KNN 아나운서
소리로 즐기는 오페라



5주 11월 23일 (수)
홍지혜
오페라 코치, 고신대학교 초빙교수
오페라에 나타난
다양한 직업들



6주 11월 30일 (수)
김성경
연출가, 오페라제작소 밤비니 대표
김성경과 떠나는 오페라여행
오페라 체험
'나도 오페라 스타'

부산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신호점이 다른 두개의 표정

Two faces by a different vanishing point

첫번째 표정_ 날과 줄

두번째 표정_ 늙은 여자

2016.11.17 (목) ~ 18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안무_ 김용철

작가_ 김관용

연출_ 김용선



제1회
한국의 **美 & 樂** 페스티벌

우리옷, 우리춤, 우리가락... 전통의 힘!



총감독 : 이영애



음악감독 및 지휘 : 이정필



연출 : 이범권



조연출 : 이수민



2016.11.23(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공동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부산한복산업진흥조합 협연단체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아리랑 K-Tigers 시범단, 시립무용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홍보팀 607-3105, 공연운영팀 607-3143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방향 100m "7번가 피자" → 앞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



부산시립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합창과 함께하는 우리의 노래

2016.11.24(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공연운영팀 607-3142, 홍보팀 607-3108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방향 100m "7번가 피자" → 앞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4회 정기연주회

From the 신세계로부터... New World

2016. 11. 25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로시니 | 「세비아의 이발사」 서곡
G. Rossini | Overture to "Il barbiere di Siviglia"

슈만 | 피아노 협주곡
R. Schumann | Piano Concerto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A. Dvořák | 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지휘 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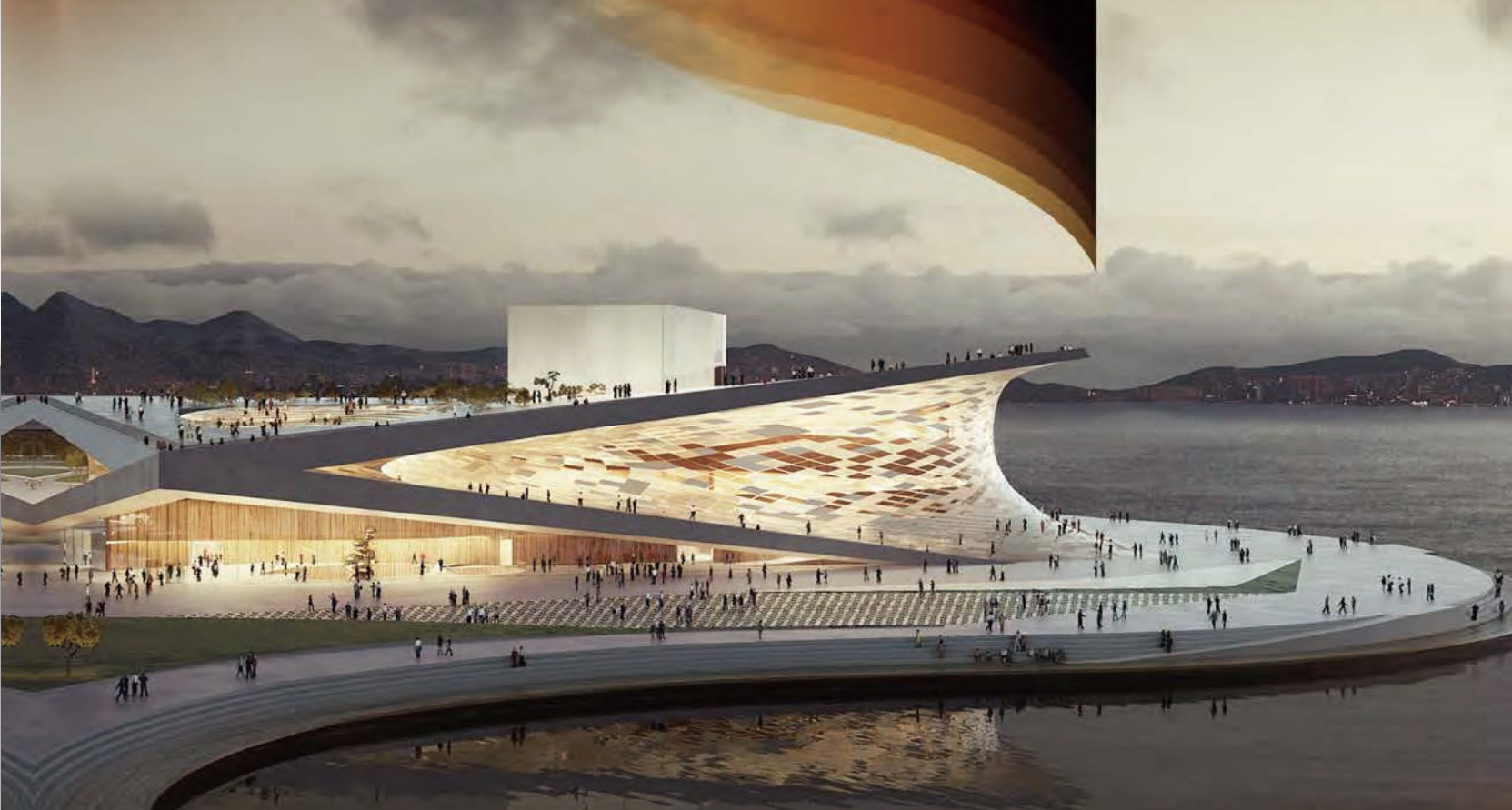


피아노 김선욱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5 (공연운영팀), 607-3151 (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셔틀버스 운행무로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파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참인(전화예약)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연회비 7만) | 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 10명이상 10%~30% 및 학생단체(300명) ▶ 전화문의

2016 부산오페라 Week



오페라 갈라 콘서트

2016. 12. 2.(금)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뉴아시아오페라단
문의 1600-6867

오페라 전막 “일 트로바토레”

2016. 12. 3.(토)~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솔오페라단
문의 1544-9373

오페라 인 콘서트 “라 트라비아타”

2016. 12. 7.(수)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그랜드 오페라단
문의 051-853-2341



NINA 선박제원

전장	폭	톤수	속력	승객 정원
39.95m	10.70m	364ton	34kn	440명

NINA 2016년 신조 선박 도입!!

- 부산 ↔ 일본 운항 선사 중 “최초로 신조, 최신식 선박 도입”
 - 네덜란드 DAMEN사에서 국내 외항선 최초 “HSC2000 CODE”로 적용하여 제작
 - 쌍동선으로 복원력이 뛰어나며 높은 안정성
- VIP용 최신식 좌석, 최고급의 가죽시트 좌석, 밝고 화사한 인테리어
 - 1층 일반석 285석, 2층 비즈니스석 155석 (다수의 자전거/낚시 승객 탑승 가능)
 - 전좌석 안전벨트 및 개인 트레이 비치
- 고객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 밝고 넓은 화장실 (1층 5개 (장애인/유아용 1칸), 2층 2개)
 - 선내 CAFE (대형 커피머신 세팅, 365일 향기로운 CAFE 운영)
 - 선내 면세점 (다양한 상품이 구비된 선내 DUTY FREE샵)
 - 넓은 수하물 보관장소 (자전거·낚시용품 보관을 위한 별도 CAGO ROOM)



운항항로

- 부산 ↔ 대마도 항로(TSUSHIMA 対馬)



개인예약 문의 • 1599-0255
 단체예약 문의 • 051-410-8802
 영업 문의 • 051-410-8803
 홈페이지(한국) • <http://www.kobee.co.kr>
 홈페이지(일본) • <http://www.kobee.jp>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okyo Philharmonic Orchestra & 핀커스 주커만 & 핀커스 주커만

Verdi Nabucco Overture | Bruch Violin Concerto | Tchaikovsky Symphony No.5



지휘 안드레아 바티스토니
Conductor Andrea Battistoni



바이올린 핀커스 주커만
Violin Pinchas Zukerman

2016. 12.6(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능소재(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